

# 햇살의 아이들

제 8 호



햇살 어린이집. 공부방

#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김남주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가자  
 앞서 가며 나중에 오란 딸만큼 하지 딸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딸만큼 하지 딸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동무 하고 가자  
 투쟁 속에 동지 모아 손을 맞잡고 가자  
 열이면 열 천이면 천 생사충 같이 하자  
 둘이라도 떨어져서 가지 딸자  
 가로질러 들뜬 살이라면 어기어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어차 건너주자  
 고개 너머 마을에서 목마르면 쉬었다 가자  
 서산낙일 해뜰어진다 어서 가자 이 길을  
 해 떨어져 어두운 길  
 네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네가 와서 일으켜주고  
 산 넘고 물 건너 언젠가는 가야할 길 시련의 길 하얀 길  
 가로질러 들뜬 누군가는 이르러야 할 길  
 해방의 길 통일의 길 가시밭길 하얀 길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 차 례

|                |               |    |
|----------------|---------------|----|
| 권두시            |               | 1  |
| 자모회장 글         | 김양순           | 2  |
| 선생님 글          | 임미녀           | 3  |
| 아이들 소개 (큰큰이 반) |               | 5  |
| 아이들 소개 (꾸러기 반) |               | 12 |
| 연예편지공개         | 편집부 엮음        | 20 |
| 살아온 이야기        | 강영임           | 22 |
| 자활고사 글         | 장재희           | 23 |
| 가족탐방 1         | 편집부           | 25 |
| 햇살별곡           |               | 28 |
| 공부방 아이들 글      |               | 32 |
| 신혼일기           | 민인기           | 36 |
| 가족소풍을 다녀와서     | 남하정           | 39 |
| 선생님 글          | 이혜정           | 42 |
| 탁아소 별곡         | 고정미           | 44 |
| 좋은 그림책 소개      | 신복수           | 47 |
| 아내에게           | 신상오           | 51 |
| 남편에게           | 유춘희           | 52 |
| 살아온 이야기        | 장춘옥           | 53 |
| 가족캠핑을 다녀와서     | 김정숙           | 56 |
| 가족탐방 2         | 편집부           | 57 |
| 탄생기            | 유명희           | 59 |
| 육아일기           | 서은숙           | 61 |
| 졸업생 부모글        | 김순덕. 이 순. 전필녀 | 63 |
| 앙케이트           | 편집부           | 68 |
| 기획: 노동법 상담     | 편집부           | 69 |
| 햇살소식           |               | 73 |
| 편집후기           |               | 77 |
| 햇살주소록          |               | 78 |
| 광고후원           |               | 80 |

## 살아가는 방법은 다름지라도...

김양순(자모회장)

산을 오르다 보면 서로 처음 보는 얼굴들이지만 “안녕하세요” 또는 “수고 하세요” 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서로가 힘든 것을 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아무데서나 낯선 사람 한테 이런 인사를 받는다면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우리 햇살의 어머님들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 살아가는 방법은 각양각색일지라도 어느 한가지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은 똑 같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힘든 길을 택하였기에 같이 미소 지을 수 있는 목적지가 같은 진실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더 더욱 고마운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역시 햇살이 있다는 것을 ...

햇살의 자모님들이여!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진 못하지만 우리에게겐 젊음이란 큰 재산이 있지 않은가.

감나무 꼭대기에 까치밥 하나 남겨 놓듯이 그런 여유를 갖고 한번쯤은 우리들 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뒤돌아 볼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글을 맺는다.



## 온 몸에 땀을 흘리고 천방지축 뛰어 노는 우리 아이들

임미녀선생님(구름선생님)

늦은 퇴근 길, 내 외로움 만큼 길게 늘어트려진 그림자.

처음 햇살을 알게 된 것도 이때 쯤 나염들이 대지 위를 한 없이 덮을 때였으리라. 막연한 마음으로 들어섰던 곳. 낯선 분위기들, 서먹한 선생님들과의 만남... 도망치듯 햇살의 문을 나서던 그때, 많은 생각들과 내 자신에 대한 질책들이 내 어깨를 한 없이 눌러 왔었다.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까지 몰려왔나? 나 또한 부모님의 보살핌만 받고 사랑을 갈구하는 작은 나 일 뿐인데, 늘 사랑으로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반 엄마의 역할을 할 자신이 없었다. 며칠 동안은 육체적인 압박과 의무감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다. 차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적당히 적응도 되고 주위 선생님들의 모습속에서 나의 이런 모습은 부끄러움 그자체였다. 힘든 생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의 동반자로서 처진 어깨를 추스려주던 아름다운 모습들과 햇살을 힘차게 올리던 아이들의 노래소리들, 아직도 그때의 노래소리가 지친 내 몸속에 피를 타고 힘차게 역동하는 듯하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다정한 눈 길. 낮잠시간에 일리리 토닥거리며 재워주시던 모습. 엄마와 떨어져 불안해 울던 아이들도 선생님들의 보살핌과 사랑으로 평온하게 잠드는 것을 보고 나 또한 행복했다.

사랑스러운 재롱이들의 모습이 하나씩 떠오른다. 자고 일어나면 사과 처럼 붉그레 익은 뺨위의 미소는 천사의 얼굴, 온몸에 땀을 흘리고 천방지축 뛰노는 악동 같은 얼굴, 쉬마려워 옷에다 먼저 싸고 앙 울어버리는 알미운 얼굴, 엄마 엄마하며 가슴 속에 파고드는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때론 친구들과 싸우고 너무나 많이 울어 선생님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재롱이들... 그래도 선생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보육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아니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던 내게 햇살은 많은 것을 배우게 했다.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 주면서 개개인의 장단점을 알아내고 일방적으로 한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교육을 하여

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 올바른 보육이라는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었던 햇살. 그러기에 애착이 많이 가기도 하는 곳.  
내가 처음으로 막다트렸던 벽들을 조금씩 허물어 가는 듯한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주던 곳. 비록 짧은 동안이지만 내가 살아왔던 그 많은, 어떤 시간들 보다 보람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사랑이 가득한 햇살이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조그마한 소망을 품어봅니다.

정수주. 여아. 4세

키 91.5cm 몸무게 13.5kg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잠잘때나 일어났을 때 버개를 꼭 안고 다니죠. 파머머리에 양쪽에 편을 꽃은 모습은 말하속에 나오는 귀여운 개구장이 스머프 같아요. 소꿉놀이때 많은 흥미를 가지고 여성스럽게 앉아 친구들과 얘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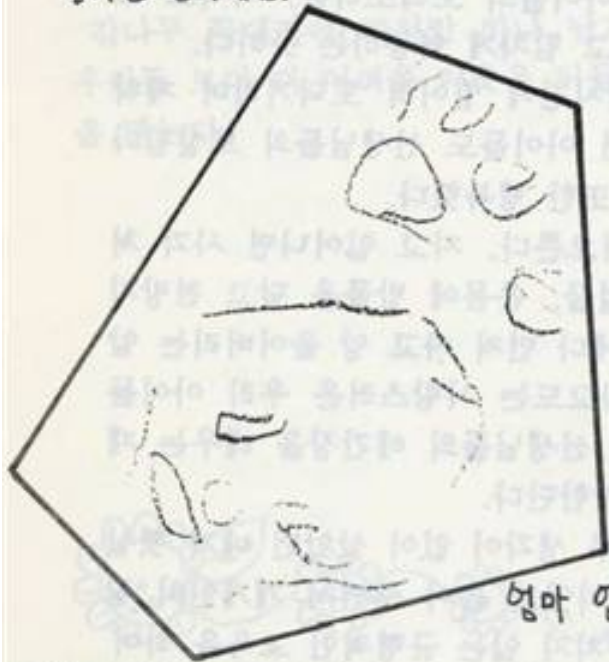


엄마 아빠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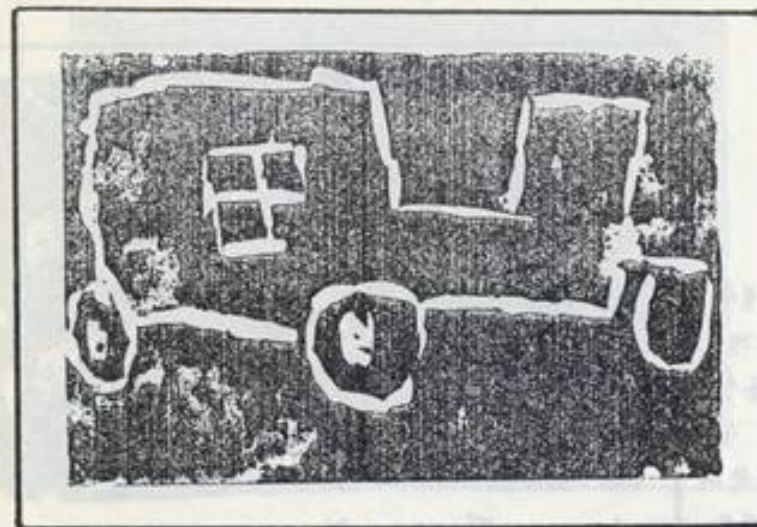
김나영. 여아. 3세.

키 90cm 몸무게 13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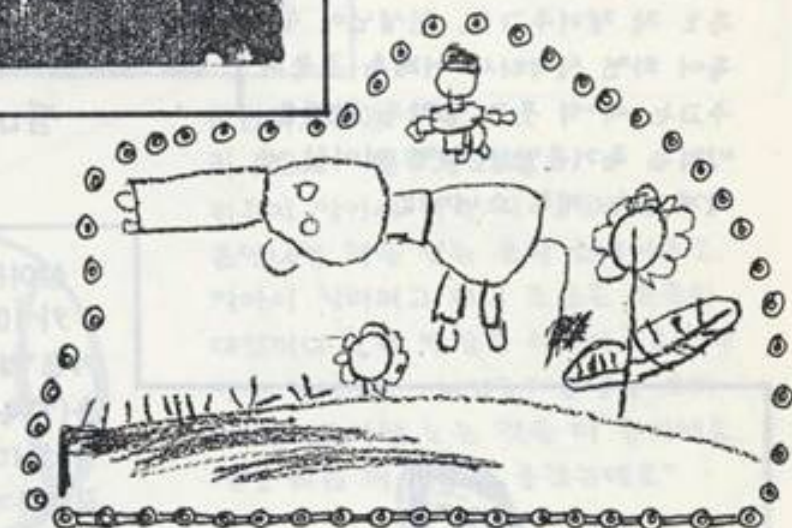
햇살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몇 달 후에 다시 찾아온 나영이. 예전 보다 훨씬 의젓하고 예쁜모습의 나영이가 되어서 우리집으로 왔답니다.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도 말씀도 잘 듣는 아이입니다.



엄마 김마



집 나르는 차



코끼리통에 사람이 탔어요

유재권. 남아. 7세.

키 113.5cm 몸무게 19kg

햇살 형아들 중 인기순위 1위의 인물.

재권이 형아랑 노는 것이 제일 재미 있다는 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다음에 크면 아마도 곤충박사가 되거예요. 25개월에 햇살과 인연을 맺은 토틀이구요. 별명은 신토불이랍니다. 헛! 비명이예요.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앉아 있는 것을 싫어해서 공부할때마다 선생님과 싸우지만 난, 알아요. 누구보다 사랑을 사랑할줄 아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남자라는 것을 그래서 누구보다도 세상을 행복하게 신나게 살아갈 인물이라는 것을.



김은지. 여아. 6세.

키 105cm 몸무게 16kg

가운뎃배를 한껏 연중 해 내줄  
아는 멋쟁이 소녀입니다. 한하게  
웃는 얼굴이 참으로 예뻐요. 동생  
들도 잘 챙겨주고요. 선생님이 한  
동어 하면 살짝해서 어깨를 주물러  
주고는 씨익 웃고 도망가는데요.  
밥먹는 줄거울만 안다면 더이상 바  
라게 없는 예쁜 소녀예요.



집나르는 차

심여은. 여아. 5세.

키 105cm 몸무게 18kg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해서 선생님들의  
총(?)을 돌구는 개성이 아주 강한 아  
이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뭐든지  
끝내주게 잘하지만 한번 보라지면 대책  
세우기가 힘들어요. 동생들에게 예뻐  
기도 잘해주고 노래도 곧잘 합니다.  
웃을때는 얼마나 호탕하게 웃는지 몰라  
요.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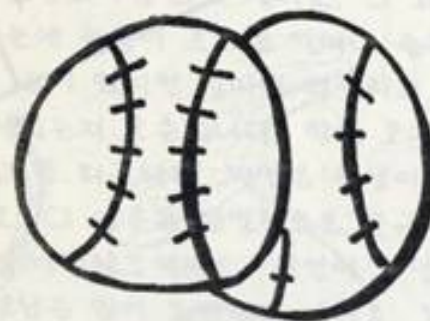


“아빠차를 타고  
시골에 가요”

장현아. 여아. 7세.

키 112cm 몸무게 18kg

뭐든지 알아서 척척 잘 합니다.  
틀날이면 책을 읽는 문학 소녀이고요.  
알아서 잘하려고 하니 조금은 소홀히  
대했더니 요즘 반항을 하더라고요. 사  
랑을 달라고요. 귀엽죠? 동생들 보다  
는 언니들이랑 노는 것을 더 좋아해요.  
살만 조금 더 췌으면 좋겠는데요~



유원규. 남아. 6세.

키 109cm 몸무게 17.5kg

쌍둥이 오빠예요. 동생들을 얼마나  
예뻐 하는지 몰라요. 자상한 성격의  
소유자이고요, 많이 의젓해졌습니다.  
만들거나 그리기등을 할때는 제일 늦  
게 작품을 만들어 내지만 언제나 정  
성을 다 합니다. 끈끈하지요. 한하  
게 웃는 얼굴을 보고싶어요.





아빠와 엄마

배진아. 여아. 6세.  
키 102cm 몸무게 15.5kg  
동생을 끈질기게 사랑하는 자상한  
누나입니다. 친구들에게 양보도 잘  
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즐기는 소녀  
예요. 그런 그녀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해요. 무엇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꼭 하고야 맙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종일 선생님을 쫓아다녀  
요. 화장실도 못가요. 토나지면 얼마  
나 귀여운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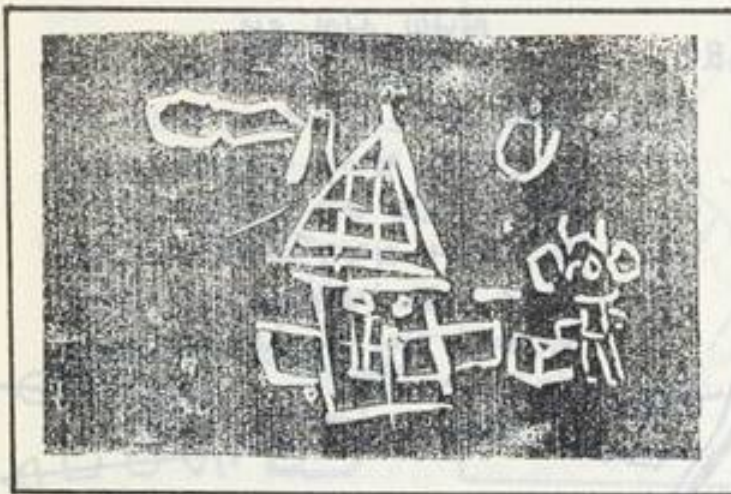
친구들과 놀아요



신영수. 남아. 5세.

키 106cm 몸무게 18kg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예요. 아담 맛  
을 익을 거의 하지 않아요. 누나가 있지  
않 먹내가지 않게 의젓하답니다. 아침마  
다 굳게 닫는 것만 없으면 말짱이겠는  
데~ 그런데 너무 신나게 재미있게 그려  
요. 형아들에게 인기있는 동생이랍니다.  
웃는얼굴이 너무 귀여워요. 앞 이빨이  
세게나 빠졌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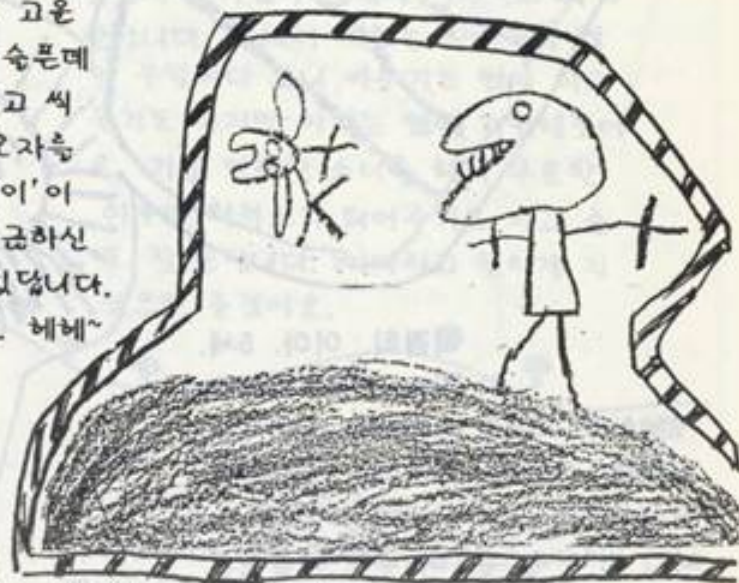


집과 토끼.

석인영. 남아. 6세.

키 108cm 몸무게 17.5kg

눈이 형소처럼 크고 예뻐요. 그 고운  
두 눈에 눈물이 흐르면 얼마나 슬픈데  
요. 겁이 많지만 얼마나 의젓하고 씩  
씩해졌는지 모른답니다. 항상 모자를  
쓰고 춤. 뛰곤해요. 별명은 '현랭이' 이  
지요. 그 이유는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분께 얘기해드릴게요. 사연이 있답니다.  
선생님을 많이 도와줘서 예뻐요. 헤헤~



"트라노와 새"



권혁민. 남아. 6세.

키 110cm 몸무게 19kg

굉장히 활발한 친구예요. 놀이를 주도해  
가고 창조해내는 스타일이라 모래의 친  
구들에게 인기가 좋답니다. 상상력이 풍  
부해서 그건도 잘 그려요. 시사적인 호  
근에도 예민하답니다. 동생들도 예뻐해  
준답니다. 준 신력도 굉장해요. 조용한  
분위기도 중직 중 아는 힘을 주소서.



하남일. 남아. 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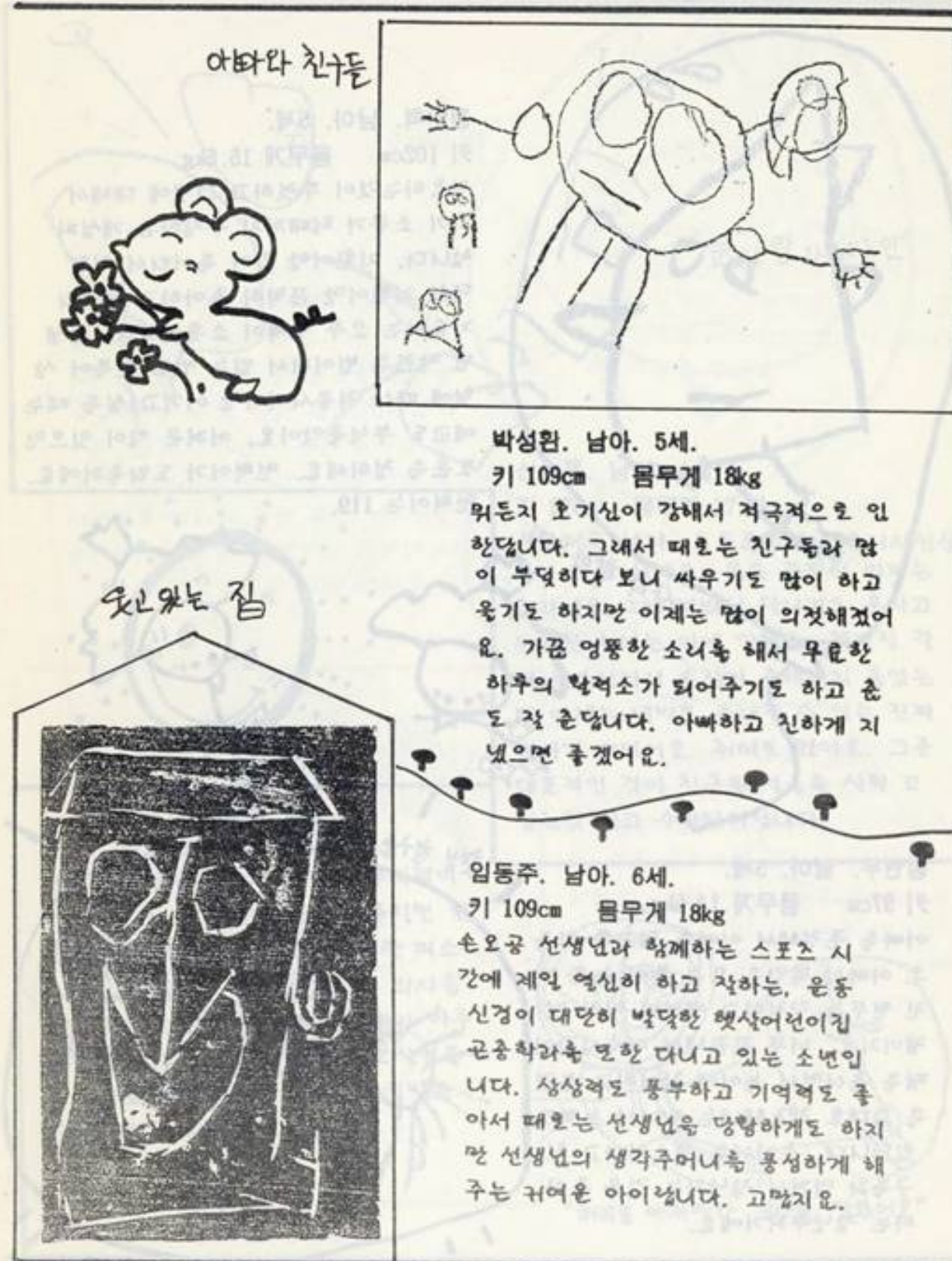
키 108cm 몸무게 17kg

햇살에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지만 제법 친구들과 잘 어울립니다. 마음이 여려서 눈물도 많고 약간은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의젓한 아이예요. 동생님 형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남영이도 형아를 많이 많이 사랑하고 잘 따릅니다. 사랑스럽죠?

이경희. 여아. 5세.

키 99cm 몸무게 17kg

상냥하고 귀여운 퍼머머리 소녀랍니다. 웃을때 나타나는 보조개가 참 예뻐요. 동생들에게는 자상한 언니이고요. '머피의 법칙'을 들으며 주는 배꼽춤은 그야말로 일품이랍니다. 노래도 카랑 카랑하게 얼마나 잘 하는데요.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익히며' 싸인 받아주세요! 하루종일 '공부하자' 하며 선생님 뒤편을 툭툭툭툭 킁니다.



박성환. 남아. 5세.

키 109cm 몸무게 18kg

뭐든지 호기심이 강해서 적극적으로 인한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구들과 많이 부딪히다 보니 싸우기도 많이 하고 욕기도 하지만 이제는 많이 의젓해졌어요.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해서 무뎠을 하루의 활력소가 되어주기도 하고 준도 잘 존합니다. 아파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임동주. 남아. 6세.

키 109cm 몸무게 18kg

손오공 선생님과 함께하는 스포츠 시간에 제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운동 신경이 대단히 발달한 햇살어린이집 곤충학과를 모한 다니고 있는 소년입니다. 상상력도 풍부하고 기억력도 좋아서 때로는 선생님을 당황하게도 하지만 선생님의 생각주머니를 풍성하게 해주는 귀여운 아이랍니다. 고맙지요.



정민혁. 남아. 5세.  
키 102cm 몸무게 15.5kg  
선호하는것이 뚜껑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소유가 될때까지 주장하는 개성파입니다. 지원이랑 같이 들어와서 일편 단신 지원이랑 끈찍히 좋아하고 햇살의 자동차는 모두 먼혁이 소유입니다. 선생님 말씀은 법이라서 없는 법도 만들어 상황에 따라 적용시키지만 어기고 싶을 때는 애교도 부릴줄알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세요. 먼혁이가 도와줄꺼예요. 먼혁이는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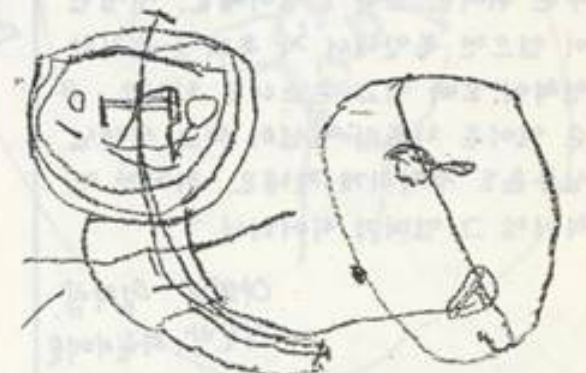
정현우. 남아. 5세.  
키 97cm 몸무게 14.5kg  
아빠를 존경해서 아빠를 닮고픈 아들은 아빠랑 똑같은 모습 특히 눈이 가진 현우는 단정하고 패션이 멋진 멋쟁이지요. 너무 끈끈해서 미숙시간이 많을 줄하면서 놀이에 참여하고 본것을 그대로 창조해내는 뛰어난 능력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쑥스럽다고 친구들과랑 엉겨서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 장난꾸러기예요.



신승훈. 남아. 4세.  
키 97cm 몸무게 17.5kg  
부드러운 남자. 포동포동해서 윤리사선생님이 먹고 싶어요. 몸을 끈찍히 아끼는 훈자예요. 다칠까봐서 달리기도 못하고 위험한 놀이는 아예 안해요. 헬기장 갈 때 못올라가서 손잡아 줄때까지 웅얼는데 이제는 네발로 올라갈 수 있는 진짜 형아가 되었어요. 취미도 많아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친구들 얼굴을 살짝 꼬집는것 하고 수다떨기랍니다.

이장섭. 남아. 4세.  
키 49cm 몸무게 15kg

작생긴 머남에 애교까지 있는 수다쟁이지요. 큰 눈을 선생님 하고 마주치면 뭐가 일을 벌일 것 같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지요. 말을 잘해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고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답니다. 아직은 언마의 보상편을 많이 받고 싶은가봐요. 아침에 신발을 언마가 신발장에 넣어줘요.



'머리를 아저씨가 모자를 잡았어요'



"영수예요."

오영수. 남아. 5세.

키 100cm 몸무게 16kg

햇살에 들어 온지 얼마 안돼서 아이  
동간의 규칙을 잘 못나 당하기도 하  
지만 자신있게 할수 있는 놀이 일량  
은 선두에 서서 이끌어 가지요. 동  
생 대익이의 꼬인(집에가자)에 적대  
넘어가지 않을 만큼 사리가 분명합니  
다. 아직은 선생님과 장난치는 아이들  
을 부러워 하는 수줍은 친구예요.



아지원. 여아 5세.

키 97cm 몸무게 14.5kg

어른들은 긴 속 눈썹에 예쁜 얼굴만 보  
고 놀아지만 노래도 작부르고 춤도 작  
주는 귀여운 꼬마 요정이에요. 선생  
이 없으면 불안해서 잘 못지만 듣지한  
면허이 오빠 딸고 큰소리도 치지요. 무  
슨 일이든 차분히 열심히 하고 선생  
님부름도 정확하게 잘해요. 하지만 면  
허이랑 그 언마가 찍어와서 ~

아빠랑. 엄마랑.  
이모랑. 자원이어요



장영은. 여아. 5세.

키 102cm 몸무게 17.5kg

조금워었다가 다시 나온 영은이는  
덜치에서 어엿한 꼬마숙녀가 되어  
어요. 다정이를 잘도타주고 동생  
들도 잘 보살펴 주는 언니라서  
놀이에서는 단연 대장이되지요.  
그런기를 아주 잘하고 좋아해요.  
뭐든 정확히 신나게 하고 우는 것  
도 졸업했는데 가끔 언마랑 헤어질  
때 어리광 부려요.

"엄마는 꼬꼬  
아빠는 귀"



이한결. 남아. 5세.

키 99cm 몸무게 14.5kg

새로운 친구나 선생님 사물에 대해서 탐  
구심이 발동하면 탐색작전이 끝날때까지  
차지하고아 마는 호기심이 많은 그래서  
다소 엉뚱한 지구적있는 한결이. 뭐든  
적극적으로 던비는 바람에 얼굴에 영령  
의 흔장을 가끔 달지만 동생만큼은 귀찮  
아 하지 않는 참꾸러기입니다.

공일청. 남아. 5세.

키 106cm 몸무게 16kg

사람을 유난히 좋아하면서 애정표현이  
서툰데 결국 욕으로 사랑을 매듭짓는  
마음약한 남자예요. 욕심이 많아서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게 아주 많아서  
식수도 많지만 이제는 그정도 작그리고  
노래도 잘해요. 동생 양말도 잘 챙기지만  
색종이는 접기가 너무 아까워 들고  
다닐 때가 더 많아요.



우리 가족

조아라. 여아. 5세.

키 107cm 몸무게 15.5kg

아침에 일어나는 속스러워 인사도 못해 못자  
락 입에 물고 섰다가도 일본도 안돼 분위기가  
변신하는 아라는 이른 처럼 햇살의 하루  
를 조아라해요. 선생님들하고 장난만 치려드  
는 까뽀이지만 공부할때 만점은 집중을 잘하  
는 실속파예요. 하면 짓도 형석 깎아주면 못  
하는 수줍음도 많은 아라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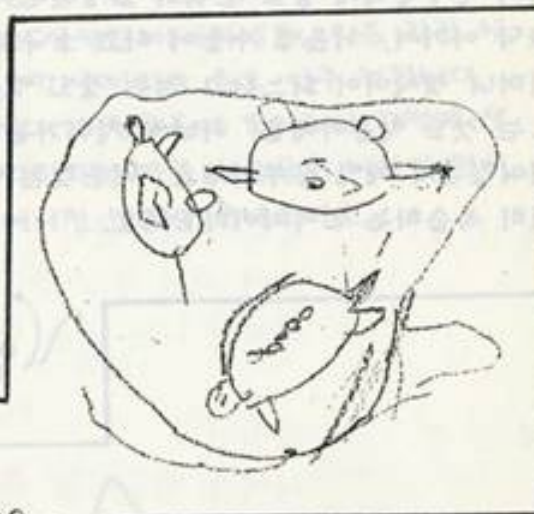


아빠가  
무지개 타고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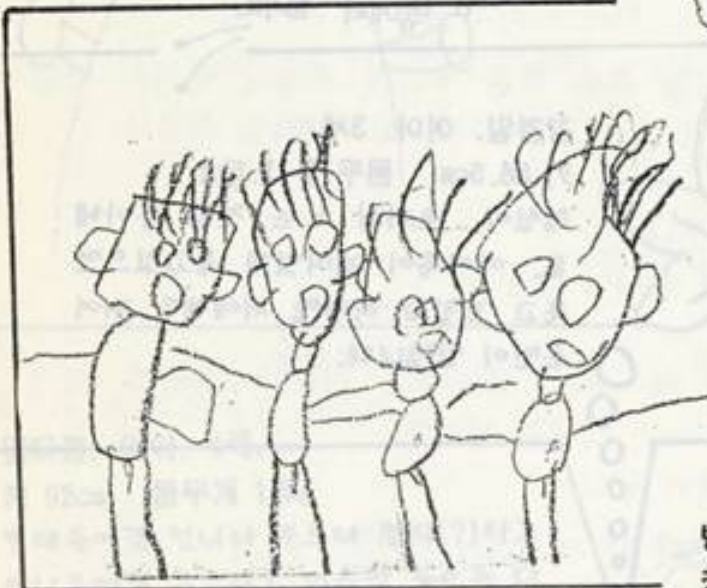
이상휘. 남아. 5세.

키 104cm 몸무게 16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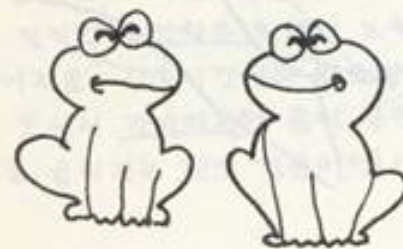
운동신경이 발달하여 스포츠 시간이면  
낮은 꼬마 선생님이 되어 차례자세로  
서 있는 톤이 기가 막히답니다. 기억력  
도 좋고 과학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공  
부시간이면 두 눈을 뻔뜯으며 진지하죠.  
정해진 규칙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엄  
격하지만 한번 웃었다 하면 누구도 감당  
할수 없는 람 고집쟁이에다가 목표(어른)  
가 정해지면 착 달라붙는 문어랍니다.



비행기



우현. 엄마. 아빠. 형



방우현. 남아. 5세.

키 96cm 몸무게 14kg

형이만 좋아하는 동생같은 동생이지요  
뭐든 천천히(뭐~ 급할꺼 있나?)하고  
마음도 너그러워 방영감이랍니다. 낮  
잠시간에 선생님들 피곤하시다고 재워  
놓고 살짝 빠져나가 노는 개구장이죠.  
그런데 참 작그리는데 언마열에는 꼭  
우현이를 그려는 어리광쟁이이기도  
해요.

김단비. 여아. 5세.

키 105cm 몸무게 16kg

바지만 입고 머리는 하나로 직끈 동어메고 까맣은 얼굴에 두 주먹 쥐고 "너! 까뽕래?" 하며 친구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학가덕 아가씨. 처음엔 수줍어 하고 소극적이더니 햇살아이 되니까 먹는 것도 일등 노는 것도 일등이에요. 하나씩 알아가는데 재미있는지 매일 공부하네요. 배운것은 열심히 복습하는 노력파이기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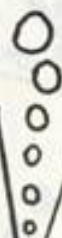


엄마랑 애기랑 밖에서 놀아요

강경임. 여아. 3세.

키 86.5cm 몸무게 11.5kg

깡심이. 혼자서 노는 것을 좋아해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있으면 목고 꼬집고 하지만 저에게도 귀여운면이 있습니다.



공진현. 여아. 3세.

키 83cm 몸무게 13kg

빠! 빠! 코!!!

빠빠코는 웃을 싫어합니다. 빠빠코를 인디언에게 시킴 보내면 우리나라 보다 더 작지않 것만 같은데... 여쭙에는 알음으로 지냈지만 지금은 거울이 되면서 바지를 벗고 다닙니다. 저누요? 서서 오줌을 싸도 바지를 알적신 자신이 있습니다. 빠빠코 하이팅!



박가연. 여아. 5세.

키 100cm 몸무게 15kg

어렸을때 아파서 몸이 불편하지만 다른 친구들 하고 똑같이 뛰어노는 밝고 씩씩한 아가씨예요. 뭐든 직접해보길 좋아하고 흥도 아주 많답니다. 꾸러기 친구들이 도둑질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가끔 심술궂은 녀석이 먹어버리면 반드시 혼내주지요.



아빠



임다정. 여아. 4세.

키 92cm 몸무게 13kg

말대들에게 언니나 부르나 험박(?)하고 언니들에게 큰소리로 이쁜말 부르는 다정이 언니는 빨리 형아가 되고 싶어서 바지만 입고 다녀요. 무슨일이든 속도 보다 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군텐이지요. 간식시간에는 반드시 선생님이 모시러 가아하지만 몸이 유연하여 알음으로 굶히기는 단연 일품이랍니다.



동주오빠

박병구 아빠가 엄마에게 연애편지 할 때 보낸 편지 100통 중에서

## 섬섬씨와 윤임이의 사랑 나누기

편집부 엮음

- 제 10 호      윤임아 실망했지?  
내가 사진 보다 못 생겨서.  
하지만 나는 마음 만은 좋아
- 제 21 호      윤임아!  
너에게 목걸이를 주는 것은 우리의 우정이 변하지 않길  
빌고 또 목걸이 볼 때 마다 나를 생각하라고 준거야.
- 제 40 호      윤을 보고 싶구나.  
빨리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윤 사랑해.  
그리고 답장 해 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한테 편지  
하지마. 그때 나는 찡피를 받았어.  
앞으로는 하지마 알았지?
- 제 52 호      그때 내가 너한테 한 번 와달라고 편지 한 적이 있지.  
그런데 너는 오지를 못 했지.  
그때 나는 너와의 만남이 이제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것을  
느꼈다.  
임이 나를 싫어하면 나도 너를 억지로 사귀고 싶지 않아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진정한 사귀이 되지.  
나의 마음은 임이(병구엄마) 변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을꺼야. 알았지?  
너를 진정으로 좋아 한다.

- 제 63 호      답장 받는 즉시 편지 해라.  
너무 편지를 읽는 것 같구나.  
또 온다고 답장도 해주고 알았지?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

- 제 70 호      무사히 도착 했더니 반갑구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 온 것을 감사하게 느낀  
단다. 윤임아. 아마 너를 좋아하니까 내가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겠지?  
그래 너를 너무나 좋아 한단다.

- 제 84 호      소포와 편지 잘 받아 보았어. 고마워.  
나를 위해 장갑을 보내 주어서.  
항상 너를 생각하며 끼울게.

이렇게 사랑을 주고 받으며  
둘이는 결혼을 해서  
병구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몇달후에는  
병구의 예쁜 동생도 생긴대요.



## 사랑하는 우리 아내여! 아들이여!

강영인(권혁면어머니)

안녕하세요.

혁면네 집 자랑 존 하려고 해요.

저희 부부는 중매로 만나 1987년 12월 27일 그해 3일 남겨 놓고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월세방에 살면서 몇번이름 시작했습니다. 적금도 넣어가며 열심히 일해서 전세방으로 옮겨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혁면이가 6개월 쯤 되었을때 생활이 여의치 못해 배운게 미심이라고 혁면이를 할머니집에 맡겨 놓고 일을 다녔습니다. 때로는 아빠가 퇴근을 일찍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등에 업고 언마 찾아 삼만리라고 하면서 저희 일하는 곳에 오십니다. 사랑들이 애기 아빠가 착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조금있으면 집을 장만 할 수가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월급날이 되면 언마, 아빠, 혁면이라고 희식을 하지요. 돼지갈비 먹고 그동안 수고 했다고 소주 한잔 마시고 2차 노래방에 가서 언마가 노래하면 아빠하고 아들은 멋진 춤을 추고 아들이 노래 부르면 우먼 디스코를 추지요.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항상 노력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지요. 일요일 아침이면 아들하고 자고 있으면 아빠는 밥도 하고 찌개도 아주 맛있게 끓여놓고 "사랑하는 우리 아내여, 아들이여, 아빠가 밥하고 찌개 아주 맛있게 했으니 어서 일어서 나지요." 저는 너무도 행복해서 혁면이 아빠의 복에다 보뽀를 해주지요.

사랑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싸움때도 있지만 저희집 가훈은 서로 사랑하여라

견손과 손유탄 인내를 다 하여드립니다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지요

햇살어린이집. 공부방

## 햇살같은 마음으로

자원활동선생님 장재희(지구선생님)

햇살과 인연을 맺은지도 어느 덧 2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어설피고 어색하게 아이들과 인사를 하면서 시작된 햇살과의 인연, 그것은 너무나도 저에게 소중한 만남이었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하던지.... 하지만 이젠 사정이 생겨 한참만에 봐도 저를 알아봐 주는 아이들이 몹시 고맙게 느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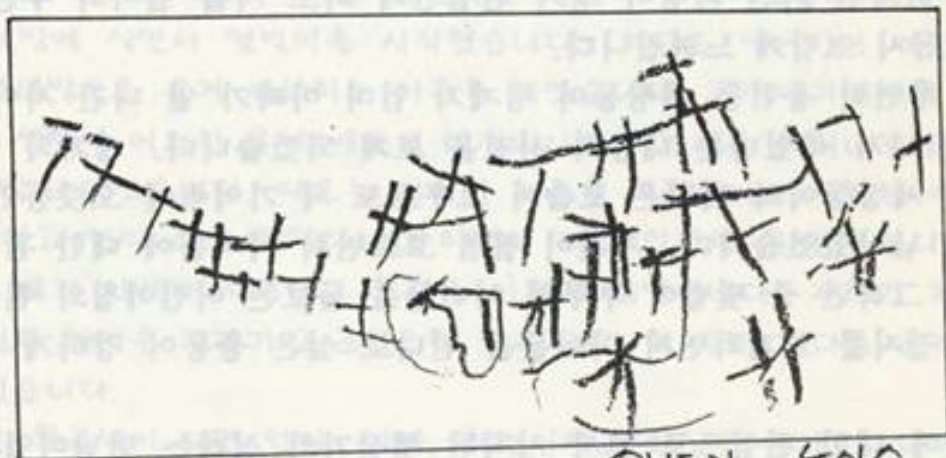
3년전 우연히 용현동 세쌍둥이 형제가 엄마 아빠가 일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나서 죽었다는 내용과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가와 함께 사진 속 세쌍둥이의 해맑은 모습이 그후로도 제 기억속에 오랫동안 인상 깊게 남아있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러던 중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의 현실이 소개된 잡지를 보게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해서 시작된 햇살과의 설레는 만남이었지만 처음 얼마동안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들과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몰라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햇살과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린이들에게 한사람을 인식 시키기 까지는 이 정도의 시간과 애정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느 정도 정이들고 선생님들과도 친숙해지면서 저에게 또 다른 만남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과의 만남이었는데, 처음 딱 본 순간 누구의 엄마시구나, 누구의 아빠신가보다 라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생각했던 아이가 달려나와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볼때 저도 모르게 나오는 웃음은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햇살에서 있었던 가족캠프와 이번 밤줍기에 함께 참여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과 엄마 아빠를 제일로 아는 아이

들의 생각은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로 라는 걸 새삼 느끼게 해준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많은 시간을 햇살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점이 늘 아쉽지만 햇살같은 마음으로, 햇살보다 더 따사로운 아이들과 언제나 함께 하고픈 마음 변함이 없으며 오늘도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과 가사일, 직장일 그리고 아이들의 좋은 엄마가되기 위해 한시도 실름이 없으신 우리 자모님들께 힘내시라는 말을 드리며 미흡한 글 여기서 마칩니다.



외버들과 놀아요

이소미. 여아. 3세.

키 85.5cm 몸무게 13kg

햇살에서 만났던 다들 다들 소머리 째라고 알고 계시지요? 자기표현력도 강하고 혼자서 하는것도 좋아 하지만 가끔은 선아 언니가 너무 예뻐서 질투심을 하죠. (동이는 자주 싸우면서 놀기도 잘 합니다.)

선아 언니! 난 항상 언니에게 미안하게 생각해.



## 잔잔한 호수같은 수주. 효성이네 집

편집부기자 김영아(정현우어머니)

수주. 효성이네 집을 방문하는 날.

편집부원들은 모임을 하는 등 마는 등 수주네 집으로 향했다.

"수주야! 수주야!"

"어서오세요"

현관문을 활짝 여는 순간 수주 아빠는 겸연쩍은 듯 하면서도 반갑고 환한 얼굴로 우리들을 맞이했다. 수주네 뼈꾸기 시계가 오후 8시 10분을 가르킬때 어른들은 큰방. 아이들은 작은 방으로 편을 가르고 편집위원들은 큰방 작은 방을 오가며 수주네가 어떻게 해 놓고 사는가를 열심히 그리고 유심히 보았다. 수주 엄마는 주방에서 지지고 볶고... 맛있는 냄새가 코 끝을 간지럽힐 때 드디어 누군가가

"이야, 맛있겠다. 우리 먹으면 안될까?"

그 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한순간씩 요것 저것 맛보았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아니고 정말 맛있었다. 즐거운 식사시간. 그래도 유일한 남자이면서 이집의 주인인 수주아빠는 못본척 뒤로 제쳐두고 누가 먼저랄것도 없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바빴다. 어느정도 먹고나자 한명두명 벽을 버게 살아 등을 붙이고 또 어떤 사람은 허기진 배 때문에 탐방하지 못한 곳(욕실)으로 가보았다. 그제서야 원장선생님은

"어머 우리 아들 밥 좀 먹어야되는데... 용감아~"

최은하선생님은 고개를 상에서 뒀 줄을 모르고 연신 소리없이 먹어대고 여기서 "호호" 저기서 "하하" 그보다 더한 꾸러기 선생님은 상밑에 그릇도 아닌 세수대야만한 양푼에 잡채를 숨겨두고 혼자서 먹고 먹고 또 먹고 하시는 말씀이

"애들 즐려고 남겨 뒀는데." "애들도 좀 먹어야지."

(아무도 못봤지만 기자로서의 말은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눈여겨 보았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얼마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때 상을 물리고 조출하게 맥주를 한잔씩 마시면서 질문공세.

자! 수주 아빠, 엄마에게 시선은 집중되었지요.

"두분은 진지하게 청문회에 임해주세요. 팡! 팡! 팡!"

"수주아빠!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어요?"

"수주 엄마죠"

"아, 근데 수주 엄마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누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꺾꺾 찔렀던지 간에 지금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수주네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환하면서도 잔잔한 호수 같았지요. 사내에서 남몰래 3년을 연애하면서 어느날 밤 수주아빠 꿈에 자칭 서순진 여사(수주엄마)께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서울에서 수주엄마가 있는 인천으로 달려와 손목을 잡고

판 === \* === 판 === \* === 판 === \* 그 다음은 상상에 맡깁니다.

"마른 하늘에 웬 날벼락"

으악. 우르릉. 팡팡.

수주엄마는 그 순간 행복 끝 불행시작. (농담이 너무 심했나요?)

큰애가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랄 때 예식을 올렸답니다. 동갑나기는 궁합도 안본다는군요. 그리고 훗날훗날 이쁜 딸 수주를 낳고 천하를 얻은 마음이었다는군요. 살아가면서 제일 속상한건 수주아빠가 술을 마실때. 특히 폭주할 때랍니다.

여러분!

수주아빠께서 안하시는게 두가지있어요.

하나는 부엌일이고 또 하난 싸움이랍니다.

하지만 집안 청소는 수주 아빠 몫이래요. 알만하죠?

그리고 꼭 밟히고 싶은 것이 있어요. 수주엄마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할 때 이틀걱정을 많이 했대요. 근데 수주아빠는 도리어 수주엄마가 더 걱정이었다는군요. 왜냐면 꼼꼼한 수주엄마가 이들 걱정 할까 봐서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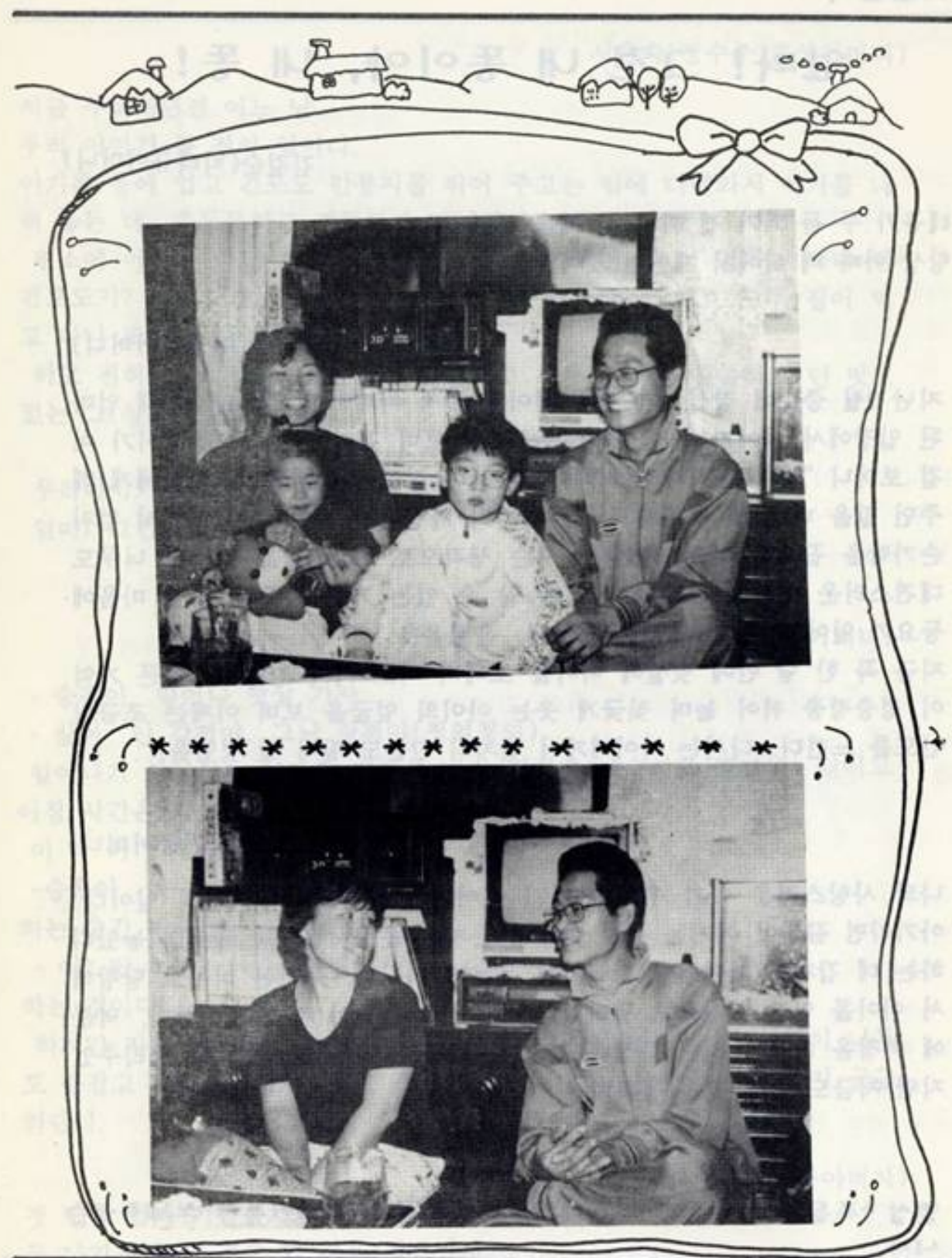
이쯤하면 수주엄마, 아빠의 사랑은 확인 되었겠지요?

수주네는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서로신뢰하는 마음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들어설때 그 환한 기운이 느껴졌나봅니다.

이 정도면 수주네를 직접 다녀온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가족탐방기를 마칠까합니다.

□△○□△○



# 엄마! 그건 내 똥이야, 내 똥!

김길순(박태규어머니)

태규가 두 돌 되기 전 까지 잠 재울 때면  
항상 아빠 배 위에서 재웠던 것이 생각납니다.

김미경(이장섭어머니)

지난 9월 중순에 장섭이가 발을 데어서 무척 아파하며 괴로워 할 때 엄마 된 입장에서 아이가 몹시 아파하는 것을 보며 같이 울었다. 장섭이가 이 걸 보더니 "엄마 울지마 씹씹해야 돼"하며 장섭이 아빠가 늘 아들에게 해주던 말을 내게 해 주면서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면서 엄지 손가락을 꼽으며 애써 웃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너무도 대견스러운 아들의 모습에서 형언 할 수 없는 기쁨과 표현 못할 마음에 동요가 일어 또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렀음을...

지금 꼭 한 달 만에 햇살에 아이를 보내며 바로 어제 같던 그 아픈 기억이 정충정충 뛰어 놀며 짓궂게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이제는 조금의 안도를 느낀다. 다시는 아이에게서 한치의 한눈도 팔지 말 것임을...

전필녀(강은지, 지웅어머니)

나의 사랑스러운 아기 우리 은지가 태어나서 백일도 되기 전의 일이다. 아기라면 끔찍이 여기는 은지 아빠가 은지를 운동시킨다며 들었다 놓았다 하는 데 갑자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게 아닌가. 우리는 너무도 당황해서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알고 보니 팔이 빠졌다고 한다. 덕분에 며칠을 마음 조리며 고생을 했었다. 그후로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주었지만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햇살가족들이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을 앙케이트에 보내주셨습니다.

서은숙(정수주, 효성어머니)

지금 부터 9년전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돌 전의 일이다.  
아기를 등에 업고 건포도 한봉지를 쥐어 주고는 밖에 다녀와서 아기를 내려 놓는 데, 후두둑하고 건포도가 떨어졌다.  
평소에 아이가 먹던 거고 뭐고 워낙 잘 집어 먹던 나 이 엄마는 아니 웬 건포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엉거주춤 앉은 상태로 모두 집어 먹고 나니 또 북! 한다. 어라? 또 있네?  
하고 전혀(?) 의심치 않고 집어 먹으려고 깨우는 순간 씹씹하고 단 맛도 없는 그(실례, 실례 냄새...)

우리아이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하는 말,  
엄마! 그건 내 똥이야 내 똥!

김미선(신승훈어머니)

- 승훈아, 일어나 햇살 가자.  
- 싫어 안 갈꺼야. 그냥 잘꺼야(칭얼칭얼)  
일어나기 싫어하는 아이를 깨워서 머리 감기고 세수하고 똥꼬(?) 닦이고 아침 시간은 왜 이리 빨리 가는지  
이 ~ 아 ~ 치카치카(승훈이 이 닦는 소리)  
-승훈아, 이- 해봐  
하는 순간 짜증 섞인 말투로  
- 이~ 만 하나? 아~ 도 해야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표현을 너무 잘 하는 내 아들 승훈아 엄마는 이 아침이 너무도 즐겁고 흐뭇하단다. 내일은 또 어떤 말로 엄마 아빠를 놀래 줄지 궁금하단다.

박우섭(박병구아버지)

첫 탄생 할때 기쁨을 느꼈다.  
돌 나기전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아빠라고 부를 때 참으로 행복이란 걸 느꼈다.

김남순(신보배. 영수어머니)

보배가 세살때, 외가에서 설날 아침에 외삼촌 언니 오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절을 하고 세배돈을 받는 것을 보고 보배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절을 했다. 세배돈을 주니까 온 식구들한테도 절을 해서 외삼촌도 세배돈을 주었다. 보배는 계속해서 온 식구들한테 다시 절을 하는게 아닌가. 그걸 본 가족들은 세배돈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고 한바탕 웃었다.

이인영(김대익어머니)

대익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한 가족의 일원으로 행복하고, 대익이가 남자이면서 여자아이 못지 않게 재롱부리면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무척이나 행복하답니다.

유춘희(김단비어머니)

단비가 두살때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린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식을 잃는 줄 알고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후로 단비를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고 직접 지금까지 이렇게 예쁘게 키웠다.

이연순(정윤희어머니)

윤희가 여섯살 때 시골에 가는 기차안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덩치가 윤희보다 훨씬 큰데도 자꾸만 여섯살이라고 우긴다.

“그럼 너 내년에는 몇살이니?”

“내년에는 나 서른살돼요. 서른살 되면 바빠요. 설거지도 해야하고 빨래도 해야돼요.” 자못 심각하게 말하는 걸 보고 있던 윤희는 더 심각하다.

“나도 바빠요. 서른 살되면 담배 피우면서 회사에 가야해요. 담배 피우면서 가면 한눈 팔고, 그러면 넘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바쁘지?”

전용숙(석인영어머니)

강아지를 이층에서 내던져 강아지가 기절한 적이 있는데 강아지가 죽은 줄 알고 조카들이 울고 불고 야단이 났었다

강태옥(조아라. 슬아어머니)

우리는 딸이 셋이다.

큰 애는 첫 딸이니까 했는데...

둘째 딸 아라를 낳고서는 많이 울기도 했다. 우리 아라를 보면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 더 잘 해주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싶은데...

우리 아라를 낳고서는 우리 부부는 법원에 까지 갔다. 딸 낳은게 엄마의 잘못만은 아닌데, 그때 우리부부는 싸움을 하도 많이해서 내가 이혼을 하자고 했다. 법원에 가자고 하니까 우리 애기 아빠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부부는 화해를 했다. 세째딸을 임신해서는 검사를 받아 보았는데 또 딸이라고 했다. 실망을 많이 했지만 (유산도 결심했었는데...)

우리 슬아를 낳고서 우리 부부는 더 위해주고 사랑하고...

우리 집 딸 셋은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

사랑하는 우리 집 딸,

슬 기. 아 라. 슬 아 !!!



조슬아. 4세. 여아.

키 90.5cm 몸무게 12.5kg

쑥 뚱어깁눈. 예쁜 모습.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있는 아이로. 모든 것들을 잘 따라 하지만 집중을 잘 잡내. 다른 반 언니 오빠들의 상행이 너무 궁금해 자꾸 밖으로만 나가려고 해요. 아마 미래에는 발로 뛰는 케리우먼이 되지 않을까.



### 깨끗한 자연

청천국민학교 1학년 정운호

사람들은 자기가 마실 공기가 없다는 것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나봐. 공장으로 공기를 오염 시켰다. 또 마찬가지로 물도 오염 시킨다. 또한 하수구로 물을 많이 오염 시킨다. 사람들은 나빴다. 자기만 좋으면 다다. 다른 사람들도 생각 해야지. 사람들은 나빴다. 내가 커서 환경 오염을 안시키는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 공기를 만들겠다.



### 환경오염

청천국민학교 2학년 이중희

환경오염때문에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라면국물은 다먹고 종이는 분리수거에 넣습니다. 신문지는 따로 모아서 쓰레기 차에 넣습니다. 학용품은 다 쓸 때까지 쓰고 환경이 안 오염되려면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먹을 것도 남으면 나무 옆에다 땅을 파고 음식을 넣습니다.



### 환경오염



청천국민학교 2학년 방사현

사람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으면 환경오염이 안되는데, 사람들이 과자 봉지나 라면 봉지 같은 것을 아무데나 버려서 환경 오염이나 공기가 오염이되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연기 같은게 나와서 공기가 오염 되고 쓰레기를 바다나 강에 버려서 고기들이 다 죽고 오염된 물이 우리가 먹는 물이 되어서 물을 먹을 때 어떨 때 병에 걸리고 기침이 나서 병원에 간다. 그래서 지구를 오염 시키지 말자.



### 환경이 더러워진 까닭

청천국민학교 3학년 양새름

요즘은 자연환경이 많이 지저분하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분리수거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씻을 때도 되도록이면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샴푸를 사용하고, 설거지 할때도 트리오를 많이 써서 폐수가 가정에서도 많이 나와 물이 지저분해 고기가 많이 죽었다. 또 산에 등산을 가거나 놀러 갈 때는 집에서 밥을 준비 해서 가야 하는데, 가서 직접 해 먹는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가져오지 않고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 버려서 산이나 유원지도 많이 오염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공기도 많이 나빠졌다. 우리들의 무책임으로 많은 사람들과 동물, 식물이 피해를 입고있다.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자연보호를 해서 21C에서도 계속 녹색지구가 되도록 해야겠다.



## 환경보호

청천국민학교 2학년 신보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버리면 공기, 산, 들, 바다가 오염이 된다. 오이 앞에 쓰레기를 버리면 심심하던 오이가 말라서 죽게 되고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지구가 파괴되고 담배 공초도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 오늘 학교에서도 환경에 대한 걸 배웠다. 쉬는 시간에 바른생활을 보았다. 지구가 갈라지고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가 물로 흘러나와 오이 밭에 오면 심심하던 오이가 말라 죽게 되고 그 물이 바다까지 가게 되면 쓰레기 때문에 고기가 죽고 식물들이 죽고 우리가 고기를 못 먹게 된다.



## 환경보호

청천국민학교 2학년 정효성

우리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우리나라가 깨끗해지는데, 우리 사람들은 바다, 땅, 산에 쓰레기만 버리지 않으면 나라가 깨끗해지는데, 쓰레기를 버려서 지금은 환경미화 아저씨가 쓰레기를 힘드시게 치운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서 우리나라가 더러워졌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된다. 우리 지구를 살리자.



## 지구를 살리려면

산곡국민학교 2학년 박명희

자연환경을 살리려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자. 그리고 어린이들은 학용품을 아껴쓰자! 왜냐하면 물과 자연환경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물이 오염이 되었다. 지금 그 모습은 물고기가 떠다니는데 장애인 처럼 지느러미가 없고 눈알이 없고 아가미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모습이다. 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래서 물을 아껴쓰고 어머니께 세재를 아껴쓰자고 하고 음식찌꺼기에 있는 물을 꼭 짜서 버리라고 말할 것이다. 자연환경이 어떻게 오염되었냐면 산이나 바다 같은데다 버려서 물이 오염되었고 산에 있는 나무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 그리고 우리가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몸이 해롭고 병에 걸리기 쉽다. 그래서 마을 근처에 나무를 많이 심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자연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심했다. 자연을 아끼자고!



청천국민학교 1학년 김민해

사람들이 연못에다 쓰레기를 버려서 연못이 더럽게 되면 사람들은 물을 못 먹게 된다. 공기도 나빠지고 공해가 들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몸도 약해진다. 그리고 물이 더러워지면 물속에 사는 고기들도 죽는다. 벌레들도 모두 죽는다. 공기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숨을 못 쉰다. 공해는 무서운 것이다.

## 넌 니꺼야!

면인기(최은하선생님 남편)

이 글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해서 걱정을 내린 것이 간단 명료하게 써야 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 유는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분들은 이미 이 관습을 거쳐 가셨기 때문에 굳이 길게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즐겁게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1. 1995년 10월 14일 그후.

3주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아직은 동 사이에 큰 갈등이나 대립은 없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이긴다.

넌 우리집에서 대장이니까.

이길 수 있는 이유를 간단히 4가지로 소개하면

첫째, 내가 키가 더 크다.

둘째, 팔길이 더 길고 주먹이 두배나 크다.

셋째, 남자가 소박 먹는 일은 여지껏 못봤다.

네째, 내가 힘이 더 세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녀는 나의 사랑하는 부인 아닌가!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녀가 말을 걸겠지?

은하야, 미안해.

2. 오후 7시 30분 제주공항

눈앞이 짙짙.

제주에 혼자버려진.

무서움에 벌벌(엄마생각이 남).

마누라 있으나 마나(눈치보며).

다행이 그곳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어 호텔을 소개 받아

집을 물 후에 같이 나가 셋이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그 사람을 빨리 보내고 난 그녀를 붙잡고 눈썹이 휘날리게 우리 방으로 들어 갔다. 첫날밤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방에 들어가 엉거주춤 서 있는데 그녀가 달려들었다. 그후엔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침에 일어나 난 그녀에게 얼굴을 더듬고 말했다.

"넌 니꺼야!"

자동차를 빌려서 우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했고 여행사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쉬고 싶은 곳에서 쉬고 달리고 싶은 곳에서 달렸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3. 양쪽 집안을 오가며 인사를 드리고 다음날엔 차를 타고 또 다시 충북 청주에 잠들어 계신 할아버님 산소와 전라도 영암의 어느 동산에 위치한 장인어른 산소를 찾아 뵙고 모든 대사(大事)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4.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렇다.

남편 : 오전 7시 기상

부인을 연수동에서 청천동까지 출근시켜주고  
오후 4시까지 집안의 가게 일을 도맡음.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아르바이트.

부인 : 아침 7시

남편의 차를 아부해서 얻어 타고 연수동에서 청천동으로 출근. 집에 들어가면 저녁 9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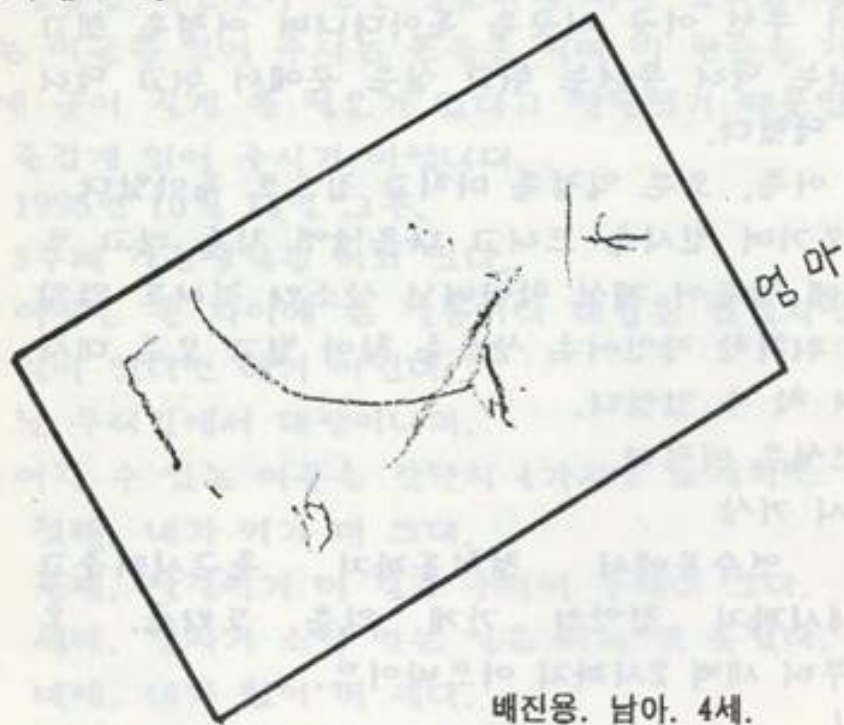
현재 3주가 지나고 내 자신은 생각한다.

결혼이라고 해서 그곳에 억매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자.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새벽에 일이 끝나고 들어가면 발로 채이기 일쑤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는 것이 지금 내 현실이며 해답을 찾으려 노력 중이다.

아무쪼록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간에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결혼아닌 결혼을 내려보며 굴  
아닌 굴을 이만 줄여야겠다.  
그동안 저희에게 보내 주신 축복과 성원에 대하여 모든 팬 어  
려분들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 통이서 잘 먹고 잘 살아 보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용. 남아. 4세.

키 94cm 몸무게 14.5kg

진용이는 햇살이 좋은거예요. 큰소  
리한 소리를 잘 지어요. 넓은 초원  
과 열매를 동경하는 타잔 같아요.  
그래서 작업시간이면 분위기를 흐려  
놓는 주책도 부리지말 눈물 다 감고  
웃는 모습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  
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되면 그냥  
먹어요. 욕심도 많아서 장난감도  
색종이도 다 진용이꺼예요.

## 밤을 파는게 아니라 재미를 팝니다

남하정(유환규, 희수, 연수어머니)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하고 짜증스러운 일상으로 부터 한시라도 벗어나고  
자 하는 생각에서 '햇살가족소풍은 어느 정도 나를 들뜨게 만들었다. 하  
지만 토요일 저녁 날씨는 올씨년스럽고 소슬하니 찬바람 마저 일었다. 행  
여 추적추적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대 부대를 이끌고 가야 할 나로써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이 너무 고단한 일과가 될 바에는 차라리 나른한 일요일을 보내는 것이  
상책이라는 유혹이 은근슬쩍 고개를 내밀었다. 하지만 두번이나 시도 했  
던 자모 등산이 한번은 비 때문에 한번은 엄마의 게으름 때문에 없었던  
일로 되면서 환규의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고 이번 만큼은 꼭 같거라  
고 믿고 있는 그 아이의 기대를 구겨 버리는 것이 엄마가 할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에라이 가자'를 선택했다.

막상 결심을 하고 나니 또 다시 막아서는 문제들이 있었다. 우선 하나는  
햇살 식구들에게 많은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것이 송구스럽고, '어휴, 아빠  
도 없이 애 셋을 데리고 뭐하러 오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총도 감  
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걸 오로지 내 자격지심이겠지만 어쨌건, 그랜저에  
서 티코로 바뀐 유모차를 밀고 햇살 앞으로 당도했다. 날씨는 화창하고  
햇살을 파사로웠다. 그때 부터 나의 근심 걱정은 말끔히 가셨다. 때쟁이  
지만 귀여운 연수에겐 이미 일일 엄마가 배정돼 있었고 환규에게는 재공  
이 형아가 있었던 것이다.

미니버스 두대에 나누어 탄 우리들은 시원스럽게 목적지를 향했고 도로  
가 화단엔 셀비어가 썰쭉하니 피어 소시적 끝을 빨던 향수에 젖게 했다.  
시가지의 벗어나면서 반쯤 누렇게 물든 14k 들판이 보였다. 하얀 눈만 덮  
였으면 영락없는 대밭일텐데 하고 생각을 들게하는 생강밭을 지나 비닐하  
우스가 바다를 이룬 풍요로운 들녘이 보일 때 쯤 끝없이 들길을 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짐을 들고 내리세요'라는 선  
생님의 지시에 나는 소녀적 생각에서 벗어나야 했다. 조금만 여유가 있었

더라도 아이들에게 들국화니, 달맞이꽃이니, 달개비꽃등의 들꽃 이름을 알려 주고 싶었지만 아이스크림 사 달라고 조르는 아이들 달래기에도 벅찼다.

좁장한 개울을 건너고 야트막한 고개를 올라 관모산 주말농장에 도착해서 잠깐 동안의 자유시간이 주어졌는데 수업시간에 도시락 까먹는 학생들처럼 벌써 김밥을 꺼내 먹고 야단 법석을 떨었다. 여기서 잠시 주목해야 할 두 사람이 있는데 민혁 어머니와 재콩이 모친이다. 이 자리를 빌어 새삼 그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애 셋둔 땀질이 엄마로써 감사를 드린다.

그런후에 우린 농장주의 주의사항을 듣고 집게와 밤 담을 봉투로 무장을 하고 산으로 올랐다. '우린 밤을 파는게 아니라 재미를 파는 겁니다.' 라고 한 농장 주인의 말을 실감하며 지천으로 널려있는 밤을 주워담았다.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밤을 주워 담는 재미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것은 노릇한 밤송이를 한발로 밟고 집게로 벌리면 그속에 윤기 도는 알밤이 두알 세알 양정 맞게 들어 있어 환호성 지르게 되는 밤송이 벌리기(까기?) 라는 것이다. 정말 얼마나 재미있는지 속세의 모든 번민과 번뇌가 다 깨끗이 잊혀지고 오로지 밤 줍기에 만(정해진 시간내에 밤 봉투를 다 채워야 되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가 아니고) 열중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면서 감정 표현이 과장되었다고도 했고 어린애 같다고도 했을 수 있겠지만 환규, 희수, 연수와 함께 하는 일인데다가 그것이 강제된 노동이 아닌데서 오는 충만감 때문에 그렇게 기쁨을 느꼈던 것이다. 비록 식구수가 많은 데 비해 일손이 부족해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알밤을 봉투에 가득히 담아 내려 올 수 있었다.

밤 줍기가 끝나고 곧바로 점심식사를 했다. 자모회장님께서 손수 제 오신 자청 쇠고기(?)와 자모회에서 준비한 동태찌개 그리고 햇살 전속 사진사님께서 담근 시원한 포기김치를 곁들인 점심 식사를 거 하게 먹었다. 점심시간엔 웃지 못할 일들이 몇가지 있었지. 쿵쿵. 밥알 보다 홍당무가 더 많은 재권이네 김밥. 결혼을 며칠 앞둔 예비 신부님의 양푼 비빔밥. 뭐라고 설명하기도 힘든 민혜네 김밥.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고 물을 사람도 있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 겠?

그런 다음 인천 대공원 산비탈 한켠에 자리 잡고 우리는 특별히 초빙한 예쁘장한 레크레이션 강사의 진행으로 울주가 없는 가무를 즐겼다. 엄마 아빠들을 맘껏 놀게 하려는 선생님들의 배려로 아이들은 개구리, 가재

잡으려 가거나 비누방울 놀이를 했나보다. 뭔가 주객이 전도된 듯한 예감이 스쳐 갔었지. 그렇지만 선생님들과 자모임원들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나로써는 즐거워 하는 전반적인 분위기에 휩쓸릴 수 밖에 없었지. 조금은 산만해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가 더 의미 있고 추억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생각면서...

추수한 알밤 푸대(?)를 바리바리 들고 오는 길에 연수의 일일 엄마이신 하마 선생님께 송구함과 고마움을 느꼈다. 그리고 여러모로 마음을 많이 써주신 원장 선생님과 별 선생님, 최은하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물론 함께 간 엄마들께도.



유희수, 여아, 3세.

키 87cm 몸무게 14kg

쌍둥이 언니.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희수. 전신, 간식을 더 먹기 싫어 2~3번을 하고야 먹는 아이. 이제는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되고 있어요.

유연수, 여아, 3세.

키 88cm 몸무게 14kg

쌍둥이 동생. 언니와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활발하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잘 추고 노는 것도 일품이랍니다. 하지만 먹는 것은 언니 처럼 좋아해요.



## 햇살을 가슴에 묻는다!

이혜정(전직교사)

1991년 여름.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이 햇살이었다. 지금의 햇살로 이사 오기전 조그마한 마당 한켠에 있던 포도나무를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좁은 공간에서 하루종일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그 좁다란 모래마당은 어쩌면 별 천지 였는지도 모르겠다. 내게 있어서도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며 처음 들어섰던 그 아담한 흙 마당은 내 마음 속 깊이 새록새록 새로운 기억으로 비집고 들어온다.

마당에서 정신없이 뛰어놀던 아이들이 눈 깜짝할 새에 대문밖으로 뛰어나가 온 동네를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 마음으로 헤집고 다니던 일. 아이들과 함께 양초를 만든다고 크레파스를 녹이다가 온 방안이 연기로 가득차 아이들을 데리고 마당으로 피신하던 일...

지금의 햇살로 이사 오면서는 여러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은 꽤 쓸모 있는 마당이었다. 그 만큼 나에게도 그 흙마당은 햇살에 대한 그리움이 물려 올 때는 어김없이 떠오르는 풍경이기도 하다.

이제 햇살의 아이들을 떠난지도 석달이나 지나버렸다. 처음 한달은 실감이 나질않아 오지랖 넓은 영감처럼 햇살 일에 참견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 했고, 두달째는 오며가며 만나지는 아이들과 엄마들과 반갑게 인사하면서 문득 햇살이 그리기도 하였다. 지금도 햇살 선생님들, 아이들 예기는 읽다 만 소설처럼 궁금하기만 하다. 모두들 잘 있는지, 별일은 없는지...

길 거리에서 오다가다 만나면 아이들이 먹던 핫도그라도 한입 가득 베어 물며 아이들 예기로 웃음 꽃을 피우고, 목욕탕에서 부끄럽게 웃으며 서로 등밀어 줄 수 있는 햇살 식구들이 좋다. 아이들 한테는 언제나 감순이, 해바라기 선생님이로 남고 싶은게 내 작은 소망이다.

하지만 엄마들 한테는 수민이 엄마로 오다가다 만나면 손잡아 끌고 떡볶이 집에라도 들어가 순대 한 접시 먹으며 예기 나눌 수 있는 다정한 이웃이고 싶다.

그동안 햇살에서 살면서 결혼하고 수민이를 낳았다. 아이를 기르면서 엄마로써 느낀점은 아이들에게는 부모와 교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햇살에서 지내며 생각나는 일들은 가슴에 묻어두고 싶다. 어느 선생님이 한 말 처럼 생각나면 꺼내 보고 가슴이 아파지면 아파하면서... 굳이 잊으려고도 하지말고 생각나면 생각하면서 마음속 깊이 햇살을 묻고 싶다.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아이들 곁에 머무르고 싶다.

햇살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박태규. 남아. 4세.  
키 100cm 몸무게 19kg  
태규는 참 좋겠다. 엄마가 힘이 장사라서 아침마다 업고 오니까. 아이들을 툭툭치고 다니지만 다 애정표현이겠지? 모습과 생활이 논논해 우리 재종이반을 지켜주는 키크. 덩치 만큼 먹는것을 아주 좋아해요.

## 애들아, 아빠 놀이방 갔다올게

동화 한편을 듣고나서 튼튼이 반 아이들과 그림그리기를 하였다.

신나게 자기들 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할때였다.

혁이가(6세) 그림을 하나 더 그려도 되냐고 물어왔다.

다음 진도를 막 나가려고 준비하던 중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서 약간 망설이다가 불쑥 꺼낸 말이

“왜? 꼭 더 그려야겠니? 안 그리면 죽을 것 같애?”

(아차 했지만 이미 옆질러진 물 쏘아버린 화살이었다.)

“에 !!”

너무나도 확신에 찬 혁이의 대답에 어찌랴!

딱 하나만 더 그리라고 했다.

잠시 후 방글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저도 더 그릴래요!”

“왜?”

“죽을까봐서요”

재롱이반과 꾸러기반 아이들은 세수하고 이를 닦고 났는데

어린이 치약을 다 써버린 것이었다.

갑자기 사려 갈수도 없고 해서 튼튼이반과 공부방은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멘티큐’치약으로 닦였다.

“이거 우리집에도 있는데”

“난 안맵다!”

“어휴 매했어”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

그런데 다음 차례가 된 성환이가(5세) 치약을 보더니 하는 말.

“와 ~ 대 따 크 다.”

- 난 순간적으로 내 주위를 둘러 보며 뭐가 크다는 거지? 했다.

우 하 하 하 하

재롱이반

블럭을 갖고 비행기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고 ...

신나게 놀다가 주현이(4세)가 병구(4세)의 블럭을 빼앗았나보다.

병구가 주현이를 잡으려고 씩씩거리며 된다.

잠시후, 병구가 주현이를 앞섰다.

그 둘은 몇 분쯤 그렇게 신나게 웃으며 뛰어 놀았다.

선생님 : 성환아, 엄마 어디에 가셨니?

성 환 : 공장예요.

선생님 : 그렇구나. 아빠는 어디가셨니?

성 환 : 회사예요.

선생님 : 응 ~ 회사 가셨구나. (아빠가 하시는 일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졌다.)

그런데 회사에서 무슨일 하시는데?

성 환 : 걸레 만들어요! ( 앙! 웬 걸레? )

소꿉방 1

여러명이 소꿉방에 모여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가를 재운다. 회사에 간다. 잘 다녀와라. 화장을 한다. 음식을 만든다.

밥을 먹는다... 너무나도 다들 바빠 보였다.

그때, 한 꼬마 녀석이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나한테 오더니

“아줌마 떡 사세요”

“얼마예요?” 하면서 주머니를 뒤지는 척하고 있는데

“이천원이요” 한다. (이녀석 보게나 크게 나오는데?)

“아휴 너무 비싸요 깎아 주세요!”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정색을 하면서 한손을 저으며 나에게 하는말

“나, 까까 없어요!”

우 하 하 하 하 내 배꼽 돌리도 ~

소꿉방 2

한 녀석이 근엄한 목소리로 다른 아이들에게 하는 말

“애들아, 아빠 놀이방에 갔다 올테니까 잘 놀고 있어라.”

꾸러기반의 요리시간

“애들아 오늘은 호박전을 만들어 보자”

“이거 뭐지?” 호박을 들어보였다.

망설일 것 없이 서너명이 크게도 말한다

“수박이요~”

“수박?”

“오이요.”

평소 유식한 상위의 눈이 동그레 진다.

“맞다. 호박이야. 호박. 저거 호박이지요 ~”

호박임을 확인한 순간 야채를 싫어하는 승훈이의 지방방송이 시작된다.

“장섭아, 너 호박 좋아해? 호박 맛있어?”

“응, 나 맛있어”

“니꺼 다 먹고 내꺼도 먹어.”

“응, 나 다 먹올래”

호박 썰은 것 하고 소금과 밀가루를 나누어 주고 골고루 묻히게 했다.

돌아가면서 호박전을 부치고 있는데 꼼꼼한 현우가 울쌍이 됐다.

“선생님, 선생님 ~ 내꺼는 다 녹았어요.”

“소금이?”

“밀가루가 다 녹아서 없어요.”

한결이는 아파서 병원에 가고 동생 소미(3세)만 햇살에 왔다.

소미가 따라 가겠다고 울고 있는데 상위가 너무 안됐다는 듯이 말한다.

“선생님 소미가 속상한가봐요. 한결이가 아파서요.”

## 우리 아이들에게

## 좋은 그림책을 보여줍니다.

(어린이도서전문점 초방)

“좋은 그림책들은 어린시절 이삼년을 위한 책이 아니라 평생의 나무를  
공 공 수 있는 씨앗을 주고, 부모가 되어 다시 만나는 이 책들은 일어  
버린 했던 본래의 꿈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 그림책 중에서

#### \* 한지놀이

이종철 글 / 이춘길 그림 / 도서출판 보림 (7세전)

우리나라에서 한지가 만들어진 과정과 한지의 우수성을 그림과 글로 보  
여주는 책이다. 한지놀이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종이 이름이다. 한지는 글  
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물을 들어서 바  
구니, 반짋고리, 연, 탈, 보석함등 공예품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한지를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도록 별지를 붙여 놓았다.

#### \* 떡잔치

강인희 글 / 정대영 그림 / 도서출판 보림 (7세전)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떡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익힐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떡 이야기이다. 계절마다 색다른 떡을 만들어 그 계절  
을 느끼게 한다. 재미있는 운율과 어휘로 우리전통의 명절과 우리민족의  
즐거운 생활모습을 떡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 \* 숨쉬는 향아리

정병택 글 / 박완숙 그림 / 도서출판 보림 (7세전)

우리의 전통적인 그릇인 순박한 옹기가 주인공이다. 숨쉬는 향아리에 담

겨진 김치, 된장, 고추장은 맛있게 익어간다. 우리생활 곳곳에서 모양새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는 용기 이야기를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보여주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 까막나라에서 온 삽사리

정승각 글. 그림 / 통나무(7세전)

옛날 불이 없었던 까막나라에는 어둠밖에 없을 때 임금님이 누군가가 불을 찾아오기를 기다렸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자 불개가 나선다. 그리고 불을 찾아오기 위해 자기 몸을 던진 불개가 바로 삽살개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우리만이 지닌 독특한 정서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책이다.

\* 어, 내 표범 팬티 어디갔지?

재미마주 기획 / 길벗어린이 (3 - 5세)

주인공인 어린이가 옷장에서 팬티를 찾는다. 어린이가 찾는 팬티를 동물들이 제 나름대로 사용하다가 결국 어린이에게 돌려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동물들의 실감나는 그림이 어린이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 장화가 줄었어요

차정인 그림 / 웅진출판 (3 - 5세)

어느 날 단비는 장화를 신으려다가 장화가 맞질 않자 장화를 나무처럼 키울려고 마당에 심기도 하고 장화를 잡아당겨 보기도 한다. 자신이 자란 것을 모르고 장화가 줄은 것으로 안다. 얼마 후 새 장화를 사고 단비의 장화를 동생에게 준다. 자기 물건에 애착을 보이는 유아들의 특성과 자기가 자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심리가 잘 나타난 생활 그림책이다.

\* 꾸러기 술이

이지현 글 / 박경진 그림 / 웅진출판 (3 - 5세)

집안에서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들이나 친구들과 유치원에서의 공동 생활에 필요한 생활습관에 이르기 까지 아이들의 일상이 재미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말썽쟁이에다 부끄럼쟁이 뿌뿌지만 친구들과의 생활을 통해 자라가는 모습은 또래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다가가며 공감을 얻는 글과 그림이다.

외국그림책 중에서

\*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

엘리엄 스타이크 글. 그림 / 여인호 옮김 / 다산기획

착하고 영리한 치과 의사인 생쥐와 음흉하고 교활한 여우를 등장시켜 사람들의 세계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린것이 재미있다. 어릴때 부터 치과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치과에 대한 바른 관념을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장갑

우크라이나 민화 / 예우게니. 파초프그림 / 김중철 옮김 / 다산기획

할아버지가 눈위에 떨어트리고 간 장갑에 먹보 생쥐가 들어가 살기 시작한다. 이어서 팔짝팔짝 개구리, 빠른발 토끼, 멧쟁이 여우가 차례로 찾아와서 같이 살자고 한다. 장갑은 터질 듯 한데... 동물들의 개성적인 모습과 리듬감 있는 언어가 그림책의 참 맛을 실감케한다.

\* 개구장이 해리

G. 자이언 지음 / M. 그레임 그림 / 김중철 옮김 / 다산기획

검은점이 있는 해리는 목욕을 싫어한다. 목욕물 받는 소리가 나자 목욕 솥을 뒤돌에 파 물은 다 옮겨 나간다. 신나게 놀고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하얀점이 있는 검은 개로 변하여 식구들이 몰라보자 안달이 난 해리는... 이 책을 보면서 주인공 해리가 바로 자기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뛰어난 그림책이다.

\* 작은집 이야기

버지니아 버튼 글. 그림 / 홍연미 옮김 / 시공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와 관련지어 읽어 보면 이 그림책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지 깨닫게 한다.

## 부모님께 권하는 책

마프이따시 지음 / 이상연 역음 / 샘터

이 책은 그림책의 정의에서 부터 시작하여 어린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선택,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법, 성장단계에 맞는 그림책 고르기, 그림책 만들기 등 유용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 어린이에게 좋은 그림책을 입혀 주고 싶어 하는 젊은 엄마, 아빠,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 어린이와 그림책

서정모 글 / 보리

이야기는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과 흥겨움으로 하는 것이며 말재주 있는 몇 사람 것이 아니라 땀 흘리며 일하는 보통사람들의 것이라는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는다. 잘난 아이, 못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키워 갈 권리는 누구든지 갖고 있다는 글쓴이의 소박한 믿음이 있다.



우리 가족

박병구. 남아. 4세.

키 95.5cm 몸무게 15kg

재롱이랑의 악동. 눈목도 많지만 행복하게 떠 돌아온. 맛둥기 시간이 되면 보조 선생님이 되어서 친구들의 소지품을 나누어 줄때면 악동의 모습은 사라지고 너무 진지해요. 병구는 수주춤 좋아 하나네요. 수주춤 열심히 챙겨주죠.

## 아이들 말썽없이 잘 자라고...

신상오(신보배, 영수아버지)

온 천지는 색동꽃으로 물들었고 오곡은 결실을 맺고 길가의 가로수는 겨울 채비를 하는가 봅니다.

모처럼 당신께 편을 들려고 하니 지나온 일들이 영희의 스크린 처럼 스치고 가는군요.

우리는 열심히 살았고 남에게 욕되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였건만 과욕을 부려다 보니 사업에 실패를 하였지.

하지만 우리 가정에 건강과 사랑이 충만하고 아이들 말썽 없이 잘 자라주니 나랏 당신의 복으로 생각합니다.

보배, 영수!

엄마 말썽 잘 듣는 착하고 귀여운 어린이가 되어 줄 것임이 아빠는 두손 모아 기도 한다. 아빠도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일이 빨리 결정되면 우리의 고생도 끝이 날 것이다.

우리 목적지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자꾸나.

우리 가정과 햇살 가족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바르면서 이만 줄임까 합니다.

안녕히 건강하게...

보배, 영수, 엄마 같이 안녕!

아빠가

1995년 11월 3일

아침

여보! 꼭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여보! 사랑해요.

유준희(김단비어머니)

사랑하는 당신께

우선 언제나 서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한 번도 서로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짧은것이 아니라 긴 것이기에 앞으로는 당신을 좀 더 사랑하고 당신을 아껴주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길 노력할게요.

당신은 언제나 저에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남자에게 반말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이 편지를 쓰는 순간부터 당신께 말을 높이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말을 높이는 힘이 들고 부끄럽겠지만 차츰 하다 보면 할 수 있겠지요.

당신에게 제가 직장생활을 하겠다고 의논 한마디 없이 단비를 햇살어린이 집에 보내고 직장생활을 할 때 당신은 저보고 힘들다거나 아프다는 말 하지 말라고 했었죠. 하지만 사람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가정과 아이를 돌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 직장생활 할 때는 무척 재미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들고 당신이 조금만 집안일을 도와주면 한걸 가벼운 마음으로 가정일을 하고 사회에서도 바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 가끔 갖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직장생활 7개월째 당신은 저에게 희망을 안겨줬어요. 저녁에 집에 오면 단비 목욕도 시켜주고 방청소도 해 주고 단비 이혼하는 것도 가르쳐주니까 마음이 한걸 가벼워지고 항상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어요.

생전 불러보지도 않았던 여보라는 말 오늘은 꼭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여보! 사랑해요.

언제나 이마운 변하지 않을게요.

우리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1995년 10월 24일

사랑하는 아내

더 열심히 살자고 두손 꼭 잡고

장춘옥(엄정어머니)

안녕하세요?

엄정(딸)이 얼마 장춘옥입니다.

이렇게 글로 만나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 볼까합니다.

처음 편팔로 남편을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저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월세방 한 칸을 겨우 얻어 신혼 생활에 들어 갔습니다. 물론 식도 못 먹었지요. 그때 방값이 보증금 30만원에 월 4만원인가 했어요. 그때 너무 좋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참 초라한 집이었어요. 억지로 만들어 놓은 방이었는데 첫날 연탄 가스를 맡아 고생했습니다. 병원에 갈 돈은 없고, 주인집 아줌마가 퍼온 김치국을 한 사발이나 마시고 억지로 정신을 차렸지만 그집에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집에 살아야 했습니다. 고철에 밥 해먹고 수저 달랑 두개가 고작이었고 저는 연탄 불도 못 갈아 허구헌날 냉방에서 잠을 잤는데 그때 추운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현실에 부딪히면서 머리가 아파했습니다. 총각 때부터 통 크게 쓰던 남편의 용돈 때문에 우선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월급의 2/3를 잘라쓰는게 거의였고 그래서 저는 생활비 마련 때문에 직장을 가져야 했습니다. 지금 큰애 6개월 때부터 있는데 가정집에 아이를 맡기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활이 나아지진 않아 월세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반복되는 생활에 남편도 나도 지치대로 지쳐서인지 윤이 알 따라서인지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나간 그해 1년 동안 직장을 여 차례나 바꾸었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본인은 얼마나 더 괴로울까 생각하니 꼭 참아야 했습니다. 그후로도 구구절절

사사건건 나를 속상하게 해 일일이 열거하면 남편 현당 같고 누워 침 뱉는 것 같아 이맛...

그래도 변함없이 굶주림은 종다는 소리를 남들에게 들으며 큰 아이 3살 되던 해 아이를 햇살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우리집도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죠. 물론 월급을 잘라쓰고 오는것도 고치고 남편이 한직장에 오래 머물고 아픈 사람도 없이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살았나 1년 동안 실천하면서 방 한칸에 부엌 한칸의 전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기분은 정말 겪어 본 사람이 아니고는 모르는 그런 것이었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집을 살때 보다 더 벅찼던 것 같으니깐요.

이사하고 첫날, 잠을 설치며 남편과 저는 더 열심히 살자고 두손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4월 4일에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기니 저도 남편도 서로에게 더욱 잘하고 밖에서도 잘 적응 해 나갔습니다. 내집 마련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또 몇년이 훌쩍 훌쩍 아이를 낳고 조그마나마 욕 6월엔 내집 마련의 소망을 이뤘습니다. 기뻐했지요. 물론.

그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편도 점점 변해 지금은 더 없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그런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잘 커가는 아이들에게도 고맙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처음엔 생활비를 목적으로 다니던 일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 생각에도 변화가 따라서 여자도 자신의 일이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면서 큰애가 다니던 햇살에 둘째 딸을 데리고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딸뉘이를 해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놀이방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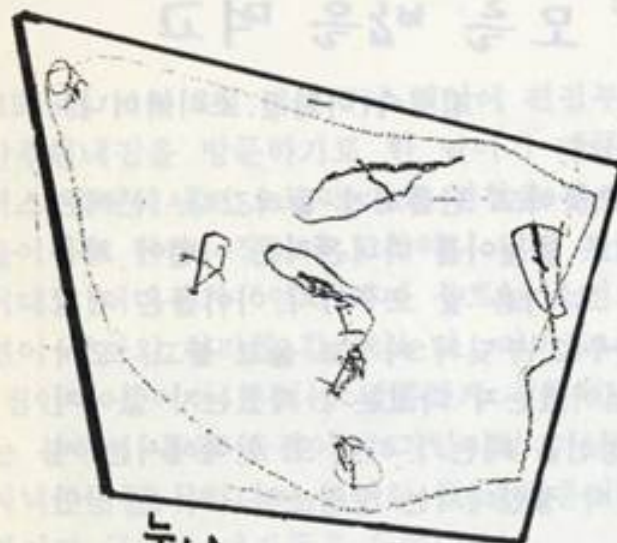
내가 그때 큰아이를 맡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다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작은 것 부터 성취해 봅시다. 자신감이 생기지요? 모든

것은 그때 시작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김지용. 남아. 3세.

키 92cm 몸무게 13kg

별명은 꾀병이. 성격은 소극적이지 않 오리지널 햇살아이가 되었답니다. 명랑하고 착하고... 하마선생님은 이런 남자를 결혼하고 싶어요.



도깨비

조선아. 여아. 4세.

키 91.5cm 몸무게 13.5kg

세상에 대해 알고 싶은 것도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본 주히 움직이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관찰하죠. 생명이이기도 해요. 선생님들과 언니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가끔은 심술도 부리고 큰 소리로 울기도 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런을 그럴때나 말동기 할때면 참 진진하게 신경을 기해서 한답니다.

## 비록 똥이 마려워

일찍 들어오긴했지만...

## 죽인지 떠인지 모를 밥을 먹고

김정숙(이한결, 소미어머니)

정말 모처럼 만에 즐거움을 맛 보았다.

우리 끼리 또는 아는 사람들 끼리 오붓하고 단출하게 놀러갔다. 본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가족들과 단체로 물놀이를 다녀온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캠프를 떠나는 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오후까지 아이들은 제각기 자기 기분에 들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부딪쳐 싸우고 울고 불고, 모처럼 만난 엄마 아빠들은 내 새끼가 넘어졌는지 다쳤는지 깨졌는지 없어지고 사라졌는지조차 모르고 수다에 정신을 빼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저녁밥을 준비하느라고 지지고 볶고 민박 정한데서는 방청소하느라 온 방안을 뒤집어 정신이 없었다.

그래도 난 가족캠프와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열심히 놀리라 작정을 했다. 늦은 저녁에는 모닥불을 피워 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춤과 노래 즐거운 단체놀이에 가슴이 쫄렁거리도록 흐뭇했다. 새끼들 자는 틈을 이용해 모처럼 서방님과 팔짱을 끼고 새벽의 강변을 산책하기도 했다. 비록 똥이 마려워 일찍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것도 낭만이라면 낭만이랄까.....

아침엔 죽인지 떡인지 모를 생쌀 비슷한 밥을 먹고 우리 네 식구는 본격적인 물놀이를 시작했다. 물 속에서는 애고 어른이고 없었다. 따가운 햇살을 보지 못해 물살은 비록 차가웠지만 아이들은 튜브에 몸을 싣고 마냥 즐거워 하는 모습이 좋아보였다. 일곱살 난 아들한테 튜브를 끌게 하고 물장구치며 마냥 좋아하던 별 선생님, 낚스는 엄마들 등살에 떠밀려 고꾸라지듯 물속에 빠지는 바람에 대신 놀라서 엄마 죽는다고 소리치며 울어대는 원장님 아들, 게임이라면 선의에 경쟁이라고 무조건 이겨야 한 다며 튜브에 남의 마누라 태워 "으쌔 으쌔" 뛰어가던 우리 한결이 아 빠.....

이 순간 만큼은 모두가 아름답고 즐거운 모습들이었다. 많은 즐거움과 추억들 그리고 아쉬움이 1박에 끝났지만 또 다시 내년을 기약하며 햇살의 집에 고마움을 느낀다.

## 배나무골 안주현네를 찾아서

편집부기자김미선(신승훈어머니)

1995년 11월 8일 저녁 7시 햇살에 편집부원들이 모두 모였다. 이유는? 안주현네집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다. 주현이네집은 효성동 2번 버스 종점에서 오르막 길로 한참을 올라가야 했다. 동네 이름이 배나무골이라고 한다. 집앞에 도착하니 낯선 사람들의 방문에 강아지는 연신 짖어대고 어디선가 "엄마"하며 부르는 소리와 함께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주현이 엄마의 허리를 감싸안는다. 아마도 주현이 누나인가보다.

집안에 들어선 우리는 말끔하게 정돈된 거실에 둘러앉았고 주현이 엄마는 분주히 몸을 움직이며 과일이라 마실것들을 내왔다. 공장일이 바빠서 저녁준비를 못했다고 미안한 듯 중국음식을 시켰고 식사를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궁금한 얘기들을 들었다.

"한 회사에서 저는 미싱을 했고 주현이 아빠는 기계를 고치는 기사였어요. 길게 연애도 못해 보고 결혼을 했지요." 하며 씩씩웃듯이 웃는다.

"첫아이가 세살때 지금도 하고 있는 봉제 하청업을 시작했어요. 누나인 아룡이가 일곱살때 동생 주현이를 낳았고 원하던 임신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장남이기 때문에 은근히 아들을 바랬어요." 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24시간 함께 일 한다는게 낯들 보기에는 좋아보일지 몰라도 저는 실을 때가 더 많아요. 자잘한 일 때문에 의견 충돌도 생기고 그래서 싸움도 많 이하고 ... 속상하고 스트레스 쌓일 때도 참 많아요. 남편이야 술먹고 풀 어 버리지만 저는 속으로 삭여요. 그래서 가슴앓이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하고 있는 일을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하며 잠깐 숨을 돌린다. 꼬집어서 말은 안했지만 아마도 좋은 점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저녁에 퇴근하면 청소는 제가해요." 주현이 아빠가 던진 한마디에 모두들 한바탕 웃었다.

"제바람이라면 주현이 아빠가 더 많이 사랑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며 수줍은 듯이 웃는 그 모습이 천상 여자구나, 그리고 참 열심히 사는 부부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현이네 집을 나서며 우리모두는 기원했다.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고 행복하시라고...  
주현이 엄마. 아빠 화이팅!

\* 한마디 더

주현이 엄마 한달 생활비 다 쓰신것 아니에요?  
걱정되네요.

\*\* 또 한마디 더

봉고차로 태워다 주신 공부방 선생님 남편분께 감사드려요.  
주현이 아파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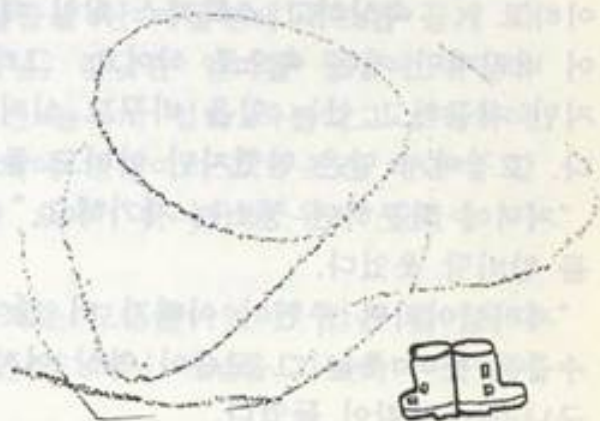


안주현. 남아. 3세

키87.5cm 몸무게 13kg

썩썩! 썩썩! 하고 부르는 주현이는 바퀴를 아주 좋아해서 바퀴의 크기에 상관없이 눈에 띄었다 하면 굴러고아 마는 바퀴맨이랍니다. 남자아이라서 노는게 어색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멋진 사나이죠. 이것은 비밀인데요.

주현이는 나영이를 사랑한데요.



## 이모 딸, 별 선생님 딸, 언마딸!

유명희(임동주. 다정어머니)

임다정이 별명은 "골통"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루일과 마무리는 저녁에 만나는 다정어머니의 입씨름이라고나 할까? 외할머니께서 "다정어머니는 누구 딸이니?" 하고 물으면 그날 기분에 따라 다정어머니의 대답은 달라진다. "이모 딸" 또는 "별 선생님 딸"이 "엄마 딸"이라는 소리 보다 훨씬 많은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시집 못 보낸 것이 한이 된 할머니는 "이 녀석. 이모 시집 못 가게 이모 딸이 뭐야? 엄마 딸이라고 해" 하면 "아니야 난 이모 딸이야. 그렇지 엄마" 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수그러들 할머니도 아니다. "이 골통아 니가 암만 이모 딸이라고 우겨봐도 소영이 없어. 넌 중인이 너무 많아" 하고 일축 해버린다. 그러면 주위에 있던 사람들 모두 "맞다. 맞아 넌 엄마 딸이야. 그건 전부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 하고 서로 마주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음을 짓는다.

과학문명이 발달한 현재로써는 애 낳는 일이 전부 산부인과 소관인 줄 안다. 낯선 의사와 간호사에 둘러 쌓여 산통을 겪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러다가 가끔씩은 애도 바뀌는 옷지 못 할 헤프닝도 벌어진다. 옛 어른들이 어린애에게 하는 농담(?) "넌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하는 것은 놀려 주는 딸이라기 보단 슬기로운 성교육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보면 산부인과가 흔치 않던 예전이 지금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성교육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하지만 나 또한 우리 조카들에게 딸보다는 실천으로 성교육을 시킨 사람이었다.

다정어머니가 태어나던 날은 여름방학이 끝나 갈 무렵이었다. 언니들과 조카들이 끝나는 방학이 아쉬워 외할머니집에 모여 신나게 놀기를 며칠 켜. 더운 날씨와 모인 식구들이 너무 많아 마루니 복도니 쓰러지는 곳이 잠자리이고 보니 화장실 가기도 불편했다. 그러던 중 난 진통이 시작됐다. 경험도 있는 일이니 소란을 피우기도 그렇고 해서 화장실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에게 치여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그 통에 엄마가 일

##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 떼어놓고...

서은숙(정수주, 혼성어머니)

첫 사내아이를 낳고 5년 터위로 태어난 늦둥이 딸 애기를 해 볼까해요. 친구가 병원에 타서는

"이 조그맣게 언제 크냐?" 하며 앙당해 해요. 자긴 다 키웠다 이거요. 아이가 7살이었거든요.

"그전소리 마라 나도 딸이 있다." 하면서 웃었지요. 퇴원을 하고 보니 친구들간에

"천하를 얻은 기분이라며?" 하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렇게 예쁜 딸 아이를 얻은 기쁨에 작은 행복을 안고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가 6개월 되던 때에 심한 감기로 인한 설사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장염이래요. 한참 뒤집을 때나 손등에 꽂은 주사기가 꽂으면 빠지고 꽂으면 빠지고 오후에 입원을 했는데 네번씩이나 빠져서 이 엄마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 이상 보기가 안스러워 퇴원한다고 떼를 쓰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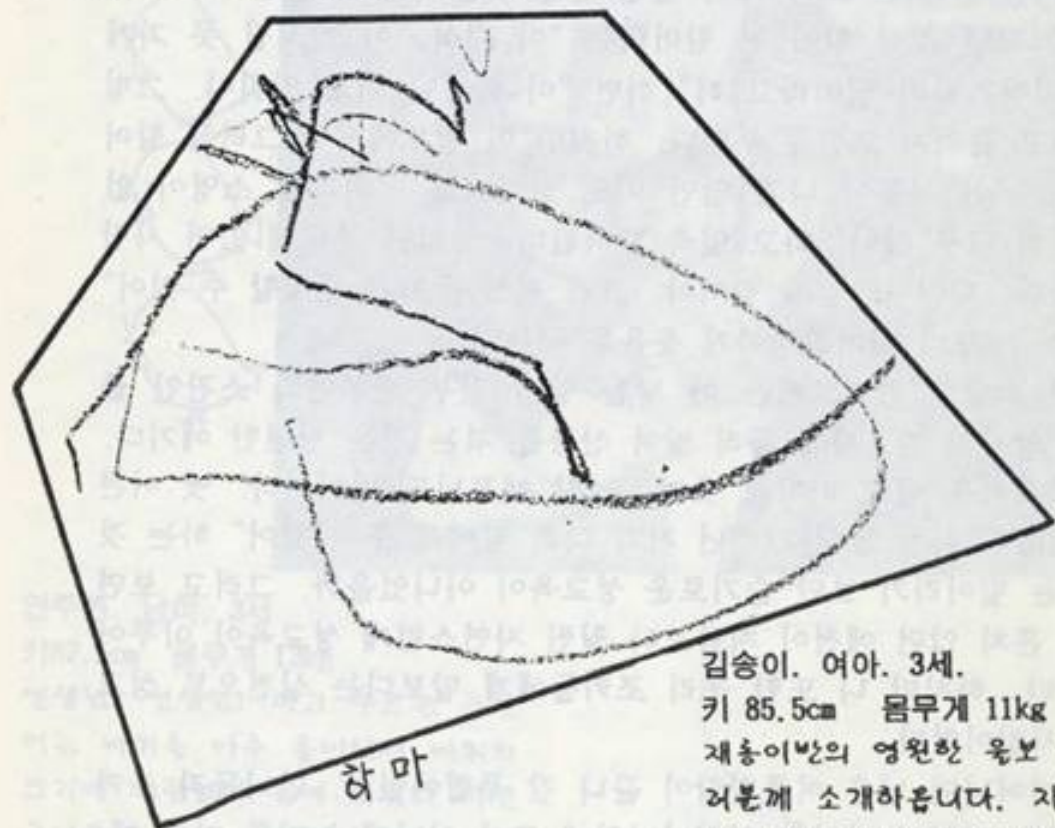
"참고 다 나아서 가야지 계속 설사하다가 탈수증 생기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하십니다. 웬만서 지켜보면 7일간의 입원이 끝나고 퇴원을 했는데도 계속 설사를 했어요. 하루에 6-7번 하는 설사를 동동거리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어느 약사분의 말씀이 시루떡을 해서 먹여서 갈아서 우유병에 타 먹이래요. 밥을 먹어야 낫는다고 신기하게도 시루떡 우유를 먹었더니 그날로 설사가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자란 아이를 이 엄마는 9년만의 퇴원(직장)을 하기 위해 한달 3일(44일)동안 빠짐없이 울려야 했습니다.

24개월이 된 우리 아이 정수주.

업자고 하면 "엄마있을꺼야, 엄마 있을꺼야" 하면서 싫다고 누워 버리고 "엄마 혼자간다." 하며 으름장을 놓으면 타서 붙잡고 도대체가 안 간다고 억무가내입니다. 떼 쓰다쓰다 지쳐버린 아이가 업

어나섰다. "산통이 시작된 것 같애" 했더니 "지금 새벽 2시니 아침나절에 나 낳겠구나" 하시면서 준비하고 병원에 가자면서 큰 언니를 깨웠다. 그 사이에 화장실에 한번 더 갔다 온다는게 방에도 못 오고 복도에서 낳았다. 잠이 들켤 큰 언니의 눈이 커지고 주위가 소란해지자 조카들도 다 일어날 수 밖에. 다정이 낳아서 방에 들어오고 보니 새벽 2시 40분. 이정도면 행운이라고 해야되나. 기분이 묘해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산부인과에 갔더니 옛날 사람들은 다들 집에서 낳는데 애 잘 낳고 뭐하러 왔냐구한다. 그런가? 이런 쑥쓰러울 때가 있나?

아뭇튼 우리 집 골통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다정의 탄생 건은 길이길이 우리 집안에 웃음을 제공 할 것이며 우리 조카들에게는 "탄생의 신비"라는 성교육의 실천의 장이 되었다.



김승이. 여아. 3세.

키 85.5cm 몸무게 11kg

재롱이반의 영원한 울보 여우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울음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장난감보다 선생님 머리 만지는 것과 얼굴 만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안울 때도 있는데...)

하면 부지런히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 언마 목을 두손으로 꼭 잡고 필사적으로 메달리는 아이의 손을 강제로 뿌리치며 직장으로 향합니다. 허가 머리 끝까지 나서 이불위에 던지다시피 떨어져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며 조금 늦게 오더라도 잘 달래서 데려다 줄 것 후회를 하면서 닭동 같은 눈물을 흘리며 다닌 직장이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젠 "수주, 누구 딸?" 하면 "선생님 딸" 하면서 선생님들을 따르고 좋아할때면 너무나 신기하고 예뻐합니다. 두손을 양쪽 무릎에 대고 공손히 인사를 하는 대견스러움에 미소를 지으며 바빠 직장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이 언마는 두 아이 챙기느라 목소리는 높아말가고 아침 마다 작은 전쟁을 치룹니다. 밝고 희망찬 내일의 앞날을 위해서...

\*\* 이 글은 여성시대에 보낸 글인데 방송되기전에 편집부에서 긴급입수했습니다.



## 덧셈, 뺄셈, 한글, 조금 못하면 어때요.

김순덕(유재권어머니)

저희 부부는 시골에서 농사일 하다가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처음에는 재권이 아빠 혼자 벌어서 생활을 꾸렸죠. 몇 개월 생활하다보니 도시 생활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기술도 회사 경력도 없는 터라 혼자 벌어서는 농사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생각에 몇번이름 하기로 나섰습니다. 처음엔 막막 하더군요. 재권을 막음놓고 딸길데가 없으니, 그러던 중 이웃 아주머니에게 햇살이라는 곳을 소개 받았답니다.

우리가 두살이 되던 해 1995년 5월 21일 드디어 햇살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제일 막동이었어요. 똥, 오줌도 가리지 못하게 입학했으니깐요. 처음엔 너무나 가슴이 아팠답니다. 햇살에 가보니 저 하나만의 일은 아니더군요. 우리 아이는 여러 선생님의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저희 부부를 실망시키지 않았답니다. 재권이 뜻밖에 적응을 잘 해주었죠.

그후로 우리네 살림이 날로날로 살찌우기 시작했습니다. 재권이 입학 한지 바운 열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니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군요. 기특하기도 하구요. 햇살에 다니면서 원만한 성격, 건강한 정신, 튼튼한 아이로 잘자라주었는데 학교에 가서도 아무 뒤탈없이 잘지내야 할텐데... 그게 걱정이군요. 지금으로서는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나 할까요. 햇살에 다니면서 재권의 인격(인간성) 하나는 확실하게 기초(통)을 잡은것 같아요. 왜 된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해 준다면...

햇살 선생님들 지금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우리네 아이들을 위해 처음과 똑 같은 마음으로 우리네 아이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살펴주세요. 몇백이 부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네 아이들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로 생각하는 그런 햇살이 되게끔 해주세요.

햇살 자모님 여러분!

지금의 햇살 처럼 든든한 곳은 지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내세요. 다른 유치원, 어린이집과는 비교할데가 못됩니다. 뽀뽀, 뽀뽀, 한글, 한 자 더 못하면어때요. 원만한 성격, 건강한 정신 그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수 없잖아요? 지식은 두고 인격은 모래위에다 성을 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구요. 햇살에서 졸업하고 학교에 다니는 선배 언니들을 보세요. 어느 누구 하나 뒤지지 않는답니다. 우리 아이 역시 마찬가지구요. 제가 왜 우리 아이가 걱정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햇살 보다 더 좋은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5년 동안 보냈겠죠.

내년 취학반 아이를 둔 자모님 여러분!

걱정일랑 걱 붙들어 메시고 너무 노심조사 마음 조이지 마세요. 제가 선배인 자모로서 하는 말이니까요. 햇살 선생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재권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햇살을 잊지 못할겁니다.

재권이 얼마, 아빠도 정말정말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 밝고 힘차게 살아 가거라

이 순 (장현아어머니)

현아가 벌써 국민학생이 될 때가 되어 햇살을 졸업하게 되다니 ...

현아는 두 돌 때 까지 아주 순한 아이로 열명도 키울수 있겠다고 소문날 정도로 순했다. 울거나 아프지 않고 잘 놀고 무난하게 컸다. 밤에도 낮에도 잠도 잘 자서 밤잠을 설치게 한적도 없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게 생명의 신비함과 그 오묘한 기쁨을 느끼게 했고 길 거리의 돌맹이조차 존재하는 것에 대해 소중함과 생의 기쁨을 맛 보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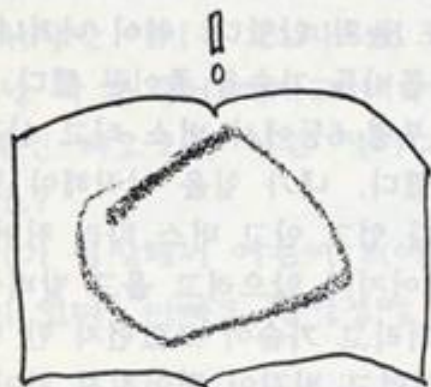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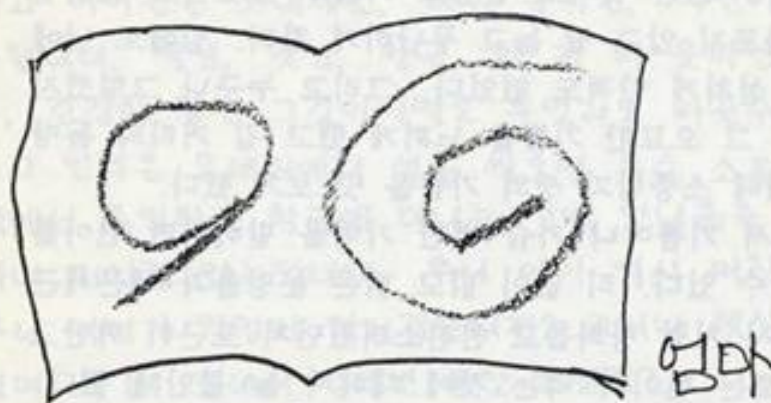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쁨이나 가슴 벅찬 기억을 말하라면 현아를 낳아 키울 때 라고 말할 수 있다. 티 없이 맑고 밝은 눈망울과 새근새근 잠 잘 때면 또 얼마나 천사 처럼 평화롭고 천진스러웠던지 포근히 껴안고 잠을 자곤 했다. 한편으로는 현아가 먹는 것에 대해서 늘 불안해 했다. 분유가 맞지 않았던지 늘 토하고 몸무게도 늘지 않았다. 열이 나거나 토하면 어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 바들바들 가슴을 졸이곤 했다.

그런 현아가 28개월이되면서 나와 함께 부평 6동에서 버스 타고 산곡동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 퇴근 해야 했다. 내가 일을 시작해야 했고 돈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현아를 아침 마다 업고 안고 버스 타러 뛰어 다녀야했다. 무지개동산에 처음 맡기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고 발버둥치는 것을 뒤로하고 나으려면 눈 앞이 아른거리고 가슴이 쓰렸던지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눈물 닦고 달래 주고 싶었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밖에서 서성이기도 했다. 퇴근시간이 가까워 오면 마음은 벌써 현아에게 달려가곤 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현아가 배운 노래를 예쁘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앙징스럽던지. 할머니, 아빠, 식구들이 기록하여 자꾸 노래를 부르게 하곤했다. 그 노래는 인절미가 시집간다는 동지 셋 달 찬바람에 엄마 생각이 나서 장갑하나 사 주려는 현아의 마음... 이런 노래를 30개월이 된 현아가 부르다니! 개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 모든 것을 안심하게 했다.

그렇게 5세까지 무지개동산에 다니고 6세가 되면서 청천동으로 이사를 해서 햇살에 다니게 되었다. 햇살이 좋은 것은 선생님들과 마음껏 뛰어

늘 수 있는 마당 공간이 있었고 자연을 사랑하는 교육방침이 좋았다. 지금도 문득문득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것은 현아에게도 내게도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된 것은 눈물 나도록 기쁠 때가 많다. 아마 현아가 커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 해 나갈 것이고 밝게 살아가리라. 햇살에서의 생활이 바탕이 되어 힘차게 살아가는데 힘이 되리라.



심수윤. 남아. 3세.

키 90.5cm 몸무게 13kg

심서방이라고 하릅니다. 요즘에는  
햇살이 제 세상입니다. 누구 못지  
않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  
습니다.

## 햇살과 함께 1년을 보내면서...

전편녀(강은지, 지용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아기 은지아!

어느덧 네가 벌써 내년이면 국면학교에 들어간다고하니 이 엄마는 뭐나  
말하곤 표현하기 힘들만큼 가슴이 벅차고 이상아듯한 기분에 젖어드는구나.  
엄마가 아빠는 결혼한 후 늦게 아기가 생기는 바람에 은지를 임신했을 때  
는 하늘로 날아 오를 듯이 기쁘고 행복했었다.

처음 너를 낳았을 때 이 엄마는 얼마나 감사하였는지...

윤절게 예쁜 공주가 나의 아기나니 멀어지지가 않았고 세상에서 부러울 것  
이 없었었다.

사랑하는 우리 아기 은지아!

너를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값진 보배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을 알고 있겠지.

사랑하는 우리 아기 은지아!

은지가 순하고 착하게만 자라주어서 엄마 아빠도 은지에게 고맙게 생각하  
고 있겠다. 지용이가 태어난 후에도 우리 은지는 여전히 엄마 아빠 말씀  
잘듣는 착한 딸로서 동생을 끔찍히 여기는 누나로서 지금까지 예쁘게 생  
활 해주어서 이젠 또 엄마 아빠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겠다.

사랑하는 우리 아기 은지아!

이제는 햇살이라는 조그마한 방에서 국면학교라는 큰방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태까지 우리 은지가 생활해왔던 것보다는 조금 생소  
하고 낯설겠지만 굳방 적응하리라 믿으며 엄마는 큰 걱정을 하지 않는  
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기 은지아!

앞으로도 계속 엄마, 아빠의 착한 딸로서 지용이의 멀음직한 누나로서 건  
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주면 엄마, 아빠는 더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구나.

사랑하는 우리 아기 은지아!

엄마, 아빠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 아기가 되어다오.

사랑하는 나의 딸 은지에게  
엄마가.

## 햇살 부모님들께 여쭙보았습니다.

설문 1. 남편은 비상금을 라면 어디에 숨기까요?

1위 - 수첩 뒤 쪽      2위 - 안 입는 옷 주머니 속

3위 - 책갈피          4위 - 자동차 안

기타 - 냉장고, 은행, 침대 밑, 양말속(에그에그... 냄새)

남편들이여!

그렇게만 해봐요. 비상금 감추어서 사랑하는 아내 한장푼 사줄건가

요? 아닌 이사할 때 부족한 돈 보태 줄건가요?

감사합니다. 모조록 많이 모아 보세요!!!

설문 2. 부부 싸움을 하고 집을 나온다면 가고 싶은 곳은?

엄마의 경우 :

1위 - 쇼핑    2위 - 여행    3위 - 분위기 있는 찻집

그외 - 시댁, 노래방, 술집

\*\*\* 난 절대로 집을 나가지 않는다. 내 쫓으면 쫓았지.(정말??)

아빠의 경우 :

1위 - 거리배회    2위 - 레포츠(볼링장, 당구)    3위 - 여행, 술집

그외 - 생각하기 싫다 (설문에 응해 주셔야징~, 나뻤다?)

설문 3. 아! 가을하면 떠오르는 단어 다섯가지

엄마의 경우 :

1위-단풍    2위-여행    3위-코스모스    4위-독서    5위-추수

기타-하늘, 결혼, 등산, 커피, 김장, 늪은호박, 난방비, 연인,

포장마차(카... 닭 동집에 소주 한잔 생각나게 하네.

누가 쓴거? 책임지슈.)

아빠의 경우 :

1위-하늘    2위-외로움    3위-낭만, 등산    4위-과일    5위-편지

기타-가로수, 비, 안개, 고추(잉! 고추?)

설문에 정성껏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문병호 변호사님과 함께

편집부

가을이 깊어 가는 초 저녁. 햇살 자모들이 하나 둘씩 모여드는 이곳 햇살 자모회에서는 오늘 특별히 문병호 변호사님께서 방문하여 주셨다. 이른바 편집회의에서 특별기획으로 결정한 노동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주시기로 했던것이다.

사 회 자 : 햇살어린이집 초창기 부터 지금까지 후원해 주시고 문병호법률사무소에서 무료법률상담도 하고 계시는 문병호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큰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 짹 짹)

(한쪽에서는 변호사님 댁지 않게 어니숙하게 생기셨다는 등 지방방송도 있었다.)

문병호변호사 : 안녕하세요. 문병호입니다. 햇살어린이집이 이곳으로 이사하고는 처음인것 같습니다. 노동법에 관한 상담이나 그밖에 가정법률등 궁금한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정현우어머니 : 7월 부터 월급을 못 받았어요. 다른 동료들은 스스로 월급을 포기하고 나갔어요. 회사 분위기가 워낙 좋고 편한데... 노동부에 고발을 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고발을 하면 퇴사를 해야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문병호변호사 : 임금에 어떤 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변제가 가능한 우선권을 가집니다. 노동부에 고발하면 쉽게 받을 수있고 퇴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의 첩판은 깔아야 하겠지요. 퇴사후 2주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단, 근저당권 설정이 된것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또, 각서는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받으세요. 각서를 받으

면 오히려 불리해질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판결에 의해서 지금 당장 받을수 있는것도 각서에 기재되어있는 기한 만큼 늦출수 있습니다.

김민혜어머니 : 상여금은 임금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땀값으로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입니까?

문병호변호사 : 입사시 근로계약 체결을 할때 약속한 금액을 줘야하는 임금의 성격입니다. 구두약속 보다는 증인이나 과거에 받은 경험에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수 있습니다.

김민혜어머니 : 수습기간 3개월도 퇴직금을 계산할때 포함되나요?

문병호변호사 : 수습기간 중 수당은 제한할수 있으나 퇴직금 정산 기간에는 포함 해야합니다.

조선아 어머니 : 국민연금을 월급에서 분명히 공제 했는데 연금공단에 찾으러 갔더니 연금이 공제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지금에 와서는 회사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요.

문병호변호사 : 국민연금 공단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입 액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위험작업장일 수록 연금의 액수가 많아집니다.

심여은어머니 : 10년간 같은 회사에서 일했는데 2년전 사장이 바뀌었다고 2년간만의 퇴직금을 주는데 8년 동안의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지요?

문병호변호사 : 사장이 회사를 인수할때 전의 채권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수를 안했으면 전의 사장에게 청구해야하고 그래도 안되면 2명의 사장을 동시에 고발을 하세요.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안됩니다.

정민혁어머니 : 회사에서 일하다 머리를 다쳐서 치료중입니다. 그런데 머리라서 급수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급수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병호변호사 : 머리는 특수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급수를 정하지 않거나 낮게 책정하는데 이는 노동부에 소송을 걸어서 등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치료를 종결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평균임금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십대 과로사로 인한 사망은 사실을 규명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수 있다.

심여은어머니 : 근로자가 회사에 피해를 입혀서 사장이 임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병호변호사 : 임금에 대해서는 상계가 안됩니다. 상계란 어려운 말인데 서로 상쇄된다는 법학적 단어지요. 그 어떤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임금은 지불해야 합니다.

김송이어머니 : 월급제로 들어 갔는데 휴일과 야근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는지요?

문병호변호사 : 휴일 근무와 야근 수당은 일당의 150%를 지급해야하고 휴일 야근수당은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중에는 작업 준비 시간과 청소 시간이 포함됩니다.

유재권어머니 : 근로기준법과 회사법은 어떻게 우선입니까?

문병호변호사 : 근로기준법이 우선입니다. 근로기준법 이하인 회사법은 무효입니다.

사 회 자 : 궁금하신게 많으시겠지만 시간이 늦은 관계로 상담을 마칠까합니다.

문병호변호사 : 노동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법률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성껏 답변해드겠습니다. 오실때는 빈손으로 오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가지고 오실 것이 있습니다. (잠시 분위기 긴장)

바로 문제에 관한 서류와 도장입니다. (처음 웃음)

그냥 오시면 바쁘신데 다시 오셔야 합니다.

**부평종합법률사무소(문병호변호사)**

**위치 : 부평역 앞 로타리 빌딩 4층**

**전화 : 525 - 4700**

## 햇살소식

### \* 1995년 1월 18일 세계공룡대전 견학

꾸러기 튼튼이들의 공룡전시회 견학이 있습니다. 큰 공룡들을 보고 아이들은 너무 놀랍고 신기하여 마냥 즐거워 하여 티라노사우르스네 아파토사우르스네 이름들을 외우느라 바빴습니다. 공룡박사 동주가 인정받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 \* 1995년 2월 25일 제 5회 졸업식 및 재롱잔치

햇살의 터줏대감 민해와 선아언니의 멋진 졸업식과 햇살 개구장이들의 재롱잔치가 있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언니들과 어머니들도 오늘만큼은 우아하게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천방지축 개구장이들은 순서도 모르고 무대에 뛰어나와 사회보는 하마선생님을 당황하게 하면서도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특히 재롱이들의 체조가 너무 귀여웠고 방글이의 살풀이도 인상적이었고 튼튼이 형님들의 엉터리 의사도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 \* 1995년 4월 22일 햇살 일일주점

햇살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서 햇살의 주인됨을 확인하는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햇살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1995년 5월 12일 어린이 봄소풍

햇살의 아이들이 장롱에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넓게 펼쳐진 잔디밭에서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재롱이 언니 5명의 화려한 외출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 \* 1995년 5월 26일 건강검진

공부방 형아들과 선생님들, 아이들 모두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로 알수 있는 건강검진을 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엄정(맑음). 여아. 2세.  
키 80cm 몸무게 14kg  
재롱이반의 영원한 똥띠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똥 오줌도 아직 가리지 못하는 막내예요. 막도 개월수 보다 빠르하고 세상에 하고 싶은 막도 많답니다. 저예요? 보신탕을 좋아합니다. 엄마께서 보신탕을 드시고 난 그 모유를 먹고 먹었습니다.  
엄마! 난 똥띠 싫어.

막지



하남명. 남아. 4세.  
키 92cm 몸무게 14.5kg  
남아들이 형과 튼튼이반 형아들과 노는 것이 더 재미있는데 형아들이 안 끼워줘서 우는 날이 많아요. 머숙시 갓에는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리기 타 먹들기를 해서 놀라기도 해요. 독창성과 창의력이 발달했네요. 이닦고 세수하기, 잠자고 일어나 옷 입고 양말신기름 아주 싫어해서 내 복차원으로 잘 돌아다녀요.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침내내 아이들의 소변을 받아내느라 아이들과 씨름을 해야했습니다.

#### \* 1995년 5월 30일 일본뇌염예방접종

모기에 물려도 병나지 말라고 주사 맞기 싫다고 엉엉 울다가도 형아들이 안우는 것을 보고 재롱이들도 팔 걷어 부치고 씩씩하게 주사를 한대씩 맞았습니다.

#### \* 1995년 6월 9일 아암도 계잡기 견학

넓게 펼쳐진 바다와 별을 보고 신난 아이들이 물속에 별속에 침범침범! 달아나는 게보고 더욱 신나서 침범! 침~범! 철이른 해수욕도 즐기고 게도 잡고... 엄마가 준비해주신 여벌옷 갈아 입고도 집에 가는 길에 달아나는 게잡겠다고 다시 뛰어들어 선생님들이 올쌍이되어야 했던 정말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 \* 1995년 6월 11일 자모등산대회 1차

모처럼 외출을 감행한 15명의 엄마들과 선생님들은 정답게 수락산을 오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산다람쥐 수주 엄마의 실력에 놀랐고 너무 많이 먹어 다이어트에 실패는 하였지만 다시 기회를 갖기로 약속하여 아쉬운 산행을 마쳤습니다.

#### \* 1995년 7월 22일 ~ 23일 대성리 여름가족캠프

17가족이 오붓하고 즐거운 1박 2일 보냈습니다. 대성리 강줄기에 민박을 정해 놓고 조를 짜서 식사 당번도 하고 물놀이도 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느라 바쁘고, 소중한 만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 \* 1995년 8월 1 ~ 2일 전국민보련 교사연수회

경기도 흥릉에서 제 1회 민간 보육시설 연합회 주최의 교사 수련회에 선생님들이 참석하여 교육도 받고 오랫동안 만나는 다른 교사들과 정보도 교환하는 교사들의 재충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 \* 1995년 8월 11일 계산 수영장 물놀이

여름이 다 가는게 아쉬워 수영복 입고 과감하게 출발! 물속에서 나을줄 모르는 아이들 덕에 선생님들도 수영복을 입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돌길을 맨발로 뛰며 뒤뜰에 매꾸기도 잡고 넓은 수영장에서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하루가 너무 짧은 자연속에서의 하루였습니다.

#### \* 1995년 9월 22일 고통공원 견학

론론이 꾸러기들이 관고동에 있는 고통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각종 표지판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고통규칙을 잘 지키는 모범시민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곳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이상휘 아버님은 어렸을때 고통공원에 다녀오셨나봐요. 햇살친구들을 모두 태우고 안전하게 나들이를 시켜주시거든요.

#### \* 1995년 10월 1일 자모등산 2차

6명의 엄마들과 형아들이 소요산에 다녀왔습니다. 하마선생님이 길 안내를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정상에는 다녀오지 못했지만 성환이랑 인영이는 산 모기가 쫓아 온다고 부지런히 그리고 신나게 산에 올랐습니다.

#### \* 1995년 10월 8일 밤줍기 및 가족소풍

미니버스 두대에 나누어 타고 인천대공원 옆에 있는 관모산 주말농장에서 밤줍기를 했는데 탐스러운 알밤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 어른들 할거 없이 밤을 줍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다 주운 밤을 메고 옆 인천 대공원에서 즐거운 오락과 함께 아이들은 가재도 잡았습니다.

#### \* 1995년 10월 13일 민간보육시설주최 가을 운동회

백운공원에 인천의 각 어린이집에서 이천여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게임도 하고 응원도 하며 체력을 다졌습니다. 재권이 형아와 현아 누나는 햇살 대표로 풍선 터트리기 대회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와서 동생들의 존경을 샀고 재롱이들의 큰공 굴리기는 웃을 다버리게 했지만 도시락 김밥이 얼마나 맛이 있던지 먹고 먹고 또 먹었습니다.

**\* 1995년 10월 14일 최은하 선생님 결혼식**

석바위 부녀복지관에서 토요일 오후 2시 최은하 선생님이랑 해적아저씨랑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게 단장한 최은하 선생님을 보고 민혁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예쁜이 선생님이래요. 부모님들이 탁아시간을 단축하는데 많이 협조해 주셔서 결혼식에 햇살가족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줄 수 있었습니다.

**\* 1995년 11월 22일 정글.인 견학**

주안에 있는 어린이나라 정글.인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에 어린이를 위한 좋은 시설이 생겨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견학갈 때마다 제외되는 재롱이들도 이번 만큼은 안 올겠다고 다짐을 하며 가방속에 기저귀와 여벌 바지를 넣고 당당히 형아들을 따라 나선 덕에 꿈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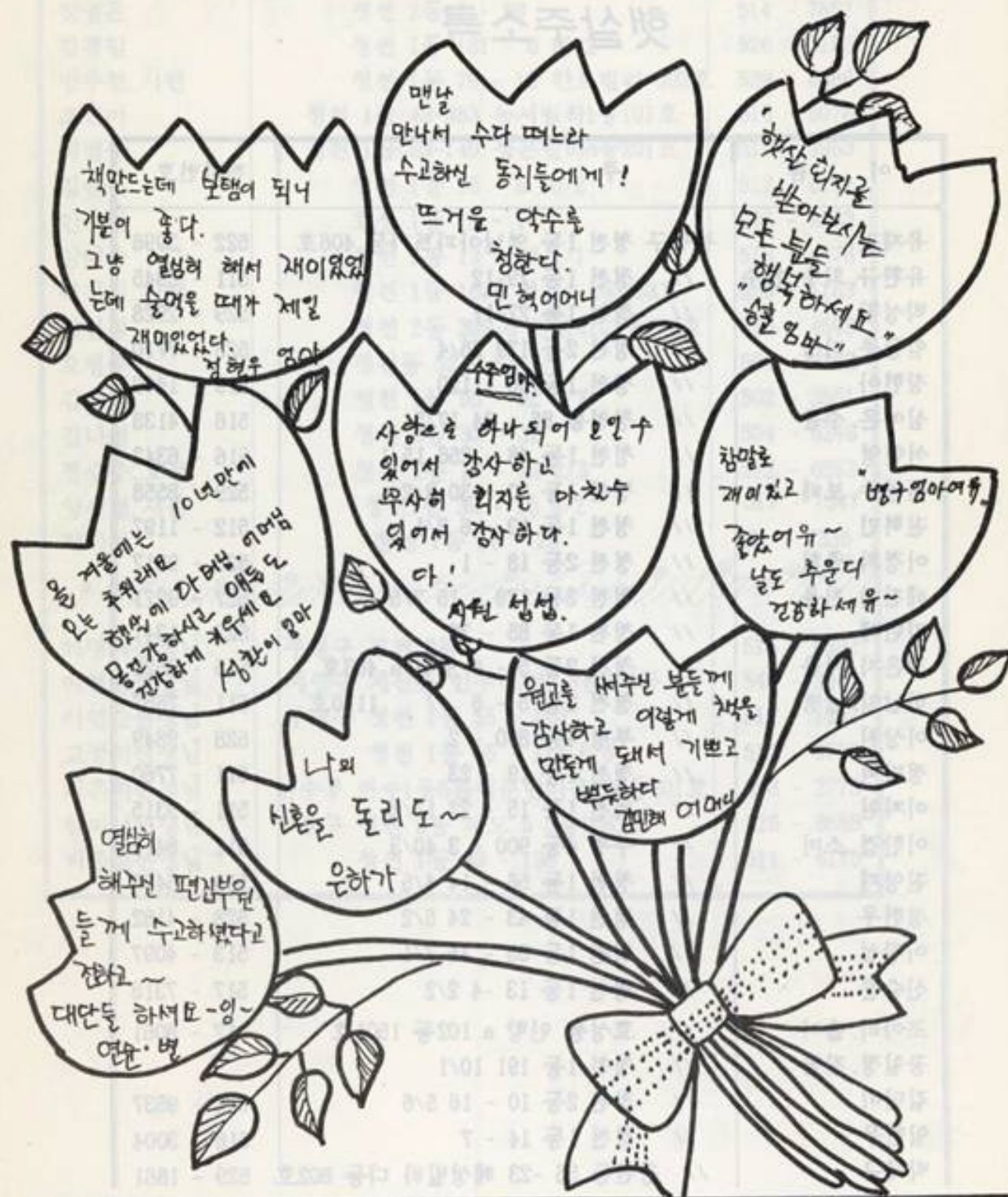
**\* 1995년 12월 15일 재롱잔치 및 가족송년회**



95. 11. 13 가을운동회

(성환, 인형, 동주, 다정, 상취, 민혁, 인영, 남일, 혁민, 남영, 지원, 지아, 아아 ...)

**편집후기**



# 햇살주소록

| 이 름         | 주 소                         | 전화번호       |
|-------------|-----------------------------|------------|
| 유재권         | 부평구 청천 1동 영남아파트가동 406호      | 522 - 3998 |
| 유환규, 최수, 연수 | // 청천 1동 79-12              | 511 - 6945 |
| 박성환         | // 청천 1동 27-17              | 529 - 2928 |
| 임동주, 다정     | // 청천 2동 179 25/4           | 523 - 7710 |
| 장현아         | // 청천 1동 55 - 120           | 519 - 1409 |
| 심여은, 수운     | // 청천동 85 - 34 17/5         | 516 - 4138 |
| 석인영         | // 청천 1동 48 - 256 15/1      | 516 - 6342 |
| 신영수, 보배     | // 청천 1동 30 - 30 9/2        | 529 - 8558 |
| 권혁민         | // 청천 1동 13 - 6 3/1         | 512 - 1197 |
| 이경희, 중희     | // 청천 2동 18 - 1             | 525 - 9817 |
| 배진아, 진용     | // 청천 2동 178 - 15 7/5       | 527 - 9271 |
| 김민해         | // 청천 1동 85 - 32            | 523 - 1341 |
| 강은지, 지웅     | // 청천 2동 5 - 6 영진 a 403호    | 515 - 6520 |
| 하남일, 남명     | // 청천 2동 5 - 6 // 1110호     | 511 - 7657 |
| 이상휘         | // 부평 4동 890 - 2            | 528 - 9849 |
| 정민혁         | // 청천 1동 19 - 23            | 511 - 7760 |
| 이지원         | // 청천 1동 15 - 22 11/2       | 511 - 9315 |
| 이한결, 소미     | // 부평 4동 900 - 3 40/3       | 511 - 8414 |
| 권영재         | // 청천 1동 56 - 14 4/5        | 515 - 6470 |
| 정현우         | // 청천 1동 43 - 24 5/2        | 528 - 4182 |
| 이장섭         | // 청천 1동 55 - 45 7/1        | 513 - 4097 |
| 신승훈         | // 청천 1동 13 - 4 2/2         | 517 - 7318 |
| 조아라, 슬아     | // 효성동 인향 a 102동 1501호      | 517 - 8061 |
| 공일청, 진현     | // 청천 1동 191 10/1           |            |
| 김단비         | // 청천 2동 10 - 16 5/6        | 512 - 9537 |
| 임현우         | // 청천 1동 14 - 7             | 516 - 3004 |
| 박태규         | // 청천동 56 - 23 혜성빌라 다동 B02호 | 529 - 1861 |

|         |                           |            |
|---------|---------------------------|------------|
| 엄 정     | 청천 1동 48 - 383 동서빌라1동201호 | 511 - 9421 |
| 장영은     | 청천 2동 9 - 88              | 514 - 7857 |
| 강경임     | 청천 1동 181 - 8 18/2        | 526 - 3153 |
| 방우현, 사현 | 청천 1동 76 - 10 한보빌라 302호   | 529 - 6886 |
| 조선아     | 청천 1동 48-383 동서빌라1동101호   | 516 - 6076 |
| 박병구     | 청천 1동 83-149 성은빌라B동201호   | 519 - 9953 |
| 김송이     | 청천 1동 16 - 8 10/2         | 512 - 0159 |
| 안주현     | 효성 1동 12 - 1              | 546 - 9832 |
| 양미송     | 청천 1동 13 - 38 1/1         | 513 - 4576 |
| 이진희, 지혜 | 청천 1동 16-8 청천a A동303호     | 526 - 1183 |
| 김민정     | 청천 2동 399-6 광명a103동704호   | 518 - 4693 |
| 오영수     | 청천동 52 - 63 7/5           | 501 - 7063 |
| 김대익     | 청천 1동 55 - 92 7/7         | 502 - 3861 |
| 김나영     | 청천 2동 30 - 32             | 504 - 6248 |
| 정수주, 효성 | 청천 1동 17 - 29 2/3         | 512 - 6593 |
| 양세별, 새롬 | 청천1동 30 - 10 9/2          | 517 - 1347 |
| 박가연     | 청천 1동 16 - 25             | 521 - 7335 |

|        |                         |            |
|--------|-------------------------|------------|
| 이명숙선생님 | 부평구 청천 2동 7 - 6         | 516 - 6392 |
| 이현정선생님 | 계양구 계산동 한우리APT 3동208동   | 546 - 3847 |
| 이연순선생님 | 부평구 청천 1동 55 - 120      | 511 - 1957 |
| 고정미선생님 | 청천 1동 55 - 114 6/6      | 513 - 0718 |
| 최은하선생님 | 연수구 연수1동5블럭문남마을106동201호 | 818 - 2773 |
| 임미녀선생님 | 부평구 청천 2동 미도 a 3동108호   | 525 - 8685 |
| 박종심선생님 | 청천 1동 83 - 136          | 511 - 6175 |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  
우리네 방아간은요---

기가 약히게 맛있는  
떡, 참기름, 들기름, 고추가루,  
미숫가루를 판매합니다.

항상 깨끗하고 정직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 513 - 9683

## 청천제일쇼핑

대표 : 조희열

- \* 청 과
- \* 야 체                      가격만족
- \* 건 어 들                  품질만족
- \* 정 육                      기쁨만족
- \* 공산품일체

\* 전화주문 신속배달

☎ 517 - 1986

저희 청천 제일쇼핑은  
소비자 여러분의 친근한 이웃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타 이 어

===== TIRE =====

대 원 대 리 점

 금 호 타 이 어

ASA® 아사알미늄휠 종판

 보게가스쇼바 에어컨가스

썬루프 전문 출 장 시 공

로켓트아트라스바트데리

☎ 521 - 8891 ~ 3

## 먹거리 농산물 직판장

\* 우리농산물을 애용하십시오.

취      과 야 생 건 식 계 소  
급      쌀                      어  
품      일 체 선 물 품 란 금  
목

전화주문 신속배달

☎ 504 - 1478

어 디 : 햇 살 입 구

**발행처 : 햇살어린이집. 공부방 자모회**

**발행인 : 자모회장 김양순**

**발행일 : 1995. 12.**

**편집위원장 : 강희옥(김민혜어머니)**

**편집위원 : 김영아(정현우어머니)**

서은숙(정수주.효성어머니)

김미선(신승훈어머니)

조윤일(박병구어머니)

김선남(박성환어머니)

최은하 선생님

이연순 선생님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 1동 14 - 28**

**5 2 5 - 3 7 3 4. 5 2 5 - 3 8 4 2**